

NAKS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재미한국학교협의회

www.naks.org

회보

2016.4

17권 2호

17대 집행부 사업 보고

14개 지역협의회 사업 안내

34회 NAKS 학술대회 안내

사진과 기사로 보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재미동포 학생들의 정체성 교육을 실현하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www.naks.org

차례

- 03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설립 목적 및 사명
- 04 인사말씀 / 최미영 회장
- 05 격려사 / 장동구 이사장
- 06 축하 / 한동만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
- 07 축하 / 최철순 샌프란시스코 한국교육원장
- 08 공고 및 안내 / 제 34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 11 공고 및 안내 / 학교 운영자 초청 워크숍
- 12 공고 및 안내 / 학술대회 집중연수
- 13 공고 및 안내 / 제 12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
- 14 공고 및 안내 / 제 6회 백범일지 독서 감상문 쓰기 대회
- 15 공고 및 안내 / 역사문화 캠프
- 16 공고 및 안내 / 제 20회 SAT 한국어 모의고사
- 17 NAKS 사업보고 I / 17대 집행부 사업 및 활동
- 18 NAKS 사업보고 I / NAKS 웹 소개
- 20 NAKS 사업보고 I / 2016년 순회연수
- 22 NAKS 사업보고 I / 제 2차 차세대 교사 워크숍
- 23 NAKS 사업보고 I / 백서 출판 기념식
- 24 NAKS 사업보고 II / 언론 보도 기사로 본 낙스 소식
- 30 NAKS 사업보고 III / 표준평가문항집 개발
- 32 NAKS 사업보고 III / SAT 한국어 예상 문제집 개발
- 33 NAKS 사업보고 III / 정주영 에세이 공모전
- 35 NAKS 사업보고 III / 코리아소사이터티 방문
- 36 NAKS 사업보고 III / 2016년 지역회장단 및 임원 연석회의
- 37 지역협의회 소식 / 각 지역협의회 주요 사업 보고
 - 동북부, 동중부, 남서부, 뉴잉글랜드, 동남부, 미시간, 북가주, 서북미, 워싱턴, 중남부, 중서부, 콜로라도, 플로리다, 하와이
- 46 소감문 / 강용철 순회연수 강사
- 48 감사 인사 / 17대 임원진
- 50 광고

집행부 및 협의 회장 / Regional Chapters & Presidents

총회장 • 최미영 / President • Miyoung Kim
 president17@naks.org

부회장 • 김정자 / Vice President • Chung Ja Y Kim
 vp-ck@naks.org

부회장 • 김인숙 / Vice President • In Sook Kim
 vp-ik@naks.org

부회장 • 이승민 / Vice President • Seungmin Lee
 vp-sl@naks.org

사무총장 • 오정선미 / General Secretary • Sunmi Jung Oh
 gs@naks.org

재무 • 유미순 / Treasurer • Kristie Yoo
 treasurer@naks.org

편집장 • 황정숙 / Chief Editor • Jeong Sook Cho
 editor@naks.org

교육간사 • 한희영 / Education Affairs • Hee Young Han
 edu@naks.org

홍보간사 • 권예순 / Public Relations • Yeasoon Kwon
 pr@naks.org

웹마스터 • 김원구 / Webmaster • Wonkoo Kim
 web@naks.org

이사장 • 장동구 / Board Chairman • Dong Koo Chang
 dkoochang@gmail.com

지역협의회 회장 / Regional Chapters & Presidents

남서부 Southwest • 임지현

뉴잉글랜드 New England • 한순용

동남부 Southeast • 선우인호

동북부 Northeast • 박종권

동중부 Mid-Atlantic • 설인숙

미시간 Michigan • 오준석

북가주 N. California • 장은영

서북미 Northwest • 이미숙

워싱턴 Washington D.C. • 한연성

중남부 Midsouth • 김명숙

중서부 Midwest • 윤현주

콜로라도 Colorado • 유미순

플로리다 Florida • 김현

하와이 Hawaii • 손애자

발행일 2016년 4월 1일 통권 제17-2
 발행인 최미영 | 편집인 황정숙
 발행처 재미한국학교협의회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www.naks.org

인쇄: 베이프린트 | www.bayprinter.com

Copyright © 2016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Inc. All rights reserved.

설립 목적 및 사명

재미한국학교협의회(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NAKS)는 미주에 있는 1,000여 주립 한국학교의 연합체이다.

한국어, 한국문화 및 역사 교육의 개발과 육성, 한국에 대해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한 긍지 함양, 교육정책에 대한 건의와 협조 추구 등 한인 차세대들에게 올바른 정체성과 긍지를 심어주는 종합 한인 교육 기관으로서 1981년에 창립된 이래 현재 미국 연방 정부에 비영리단체(501(c)(3) EIN #52-1596204)로 등록되어 있으며 미국 전역에서 1,000여 개의 회원 학교들이 함께 2세들의 미래 교육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본 협의회는 미국의 전 지역을 지역별로 나누어 전국 협의회 산하 14개의 지역협의회를 두고 있으며, 각 지역협의회는 소속 한국학교의 발전과 교사들의 교육 전문성 향상 그리고 2세들을 위한 효과적인 한국어 및 역사문화 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자체 행사를 하고 있으며 전국 협의회와 교육 행사 및 교사 연수 그리고 교육 정보에 관하여 상호 협조하고 있다.

산하 14개 지역 협의회로는 남서부 지역 (휴스턴), 뉴잉글랜드 지역 (보스턴), 동남부 지역 (애틀랜타), 동북부 지역 (뉴욕), 동 중부지역 (필라델피아), 미시간 지역 (디트로이트), 북가주 지역 (샌프란시스코), 서북미 지역 (시애틀), 워싱턴 지역 (D.C.), 중 남부 지역 (인디애나폴리스), 중서부 지역 (시카고), 콜로라도 지역 (덴버), 플로리다 지역 (마이애미), 그리고 하와이 지역 (호놀룰루) 등이 있다.

3대 중점사업

1. 열정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 육성
2. 한국어 및 한국역사 문화 교육의 강화
3. 표준화된 교육과 평가안의 개발

10대 육성사업

1. 학술대회 및 정기 총회
2. 지역협의회 활성화
3. 집중연수, 순회연수 및 기타 맞춤 연수 프로그램
4. SAT 한국어 모의고사 및 예상 문제집 발간
5. 차세대 교사 워크숍 및 역사 문화 교육
6. 나의꿈 말하기대회, 독서감상문 및 에세이 쓰기 대회
7. 표준 평가 문항 교재 발간
8. 학교 운영 및 행정용 서식집 발간
9. 협의회 회보, 한인교육 연구지 및 백서 발간
10. 협의회 홍보 및 Website의 강화

마일하이 시티 덴버에서 개최되는 제34회 학술대회에 선생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총회장
최미영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이하고 새로이 시작한 봄학기가 어느덧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동포 차세대 학생들의 바른 정체성 교육을 위해 주말마다 헌신, 봉사하시는 모든 회원학교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에 발간한 백서를 준비하며 지난 35년의 역사 동안 우리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소속 학교와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해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그러한 수고와 헌신이 인정을 받아 2015년 재외동포재단이 전 세계 2천여 한국학교로 확대 실시한 맞춤형 지원사업 평가에서 본 협의회와 협의회 소속 5개 학교가 대상 및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 재미한국학교협의회의 본질과 역량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이며 여러 선생님들이 자원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교육자로서의 소양을 함께 키워왔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본 협의회에서는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학술대회와 순회연수회, 집중연수회, 차세대 교사 워크숍, 리더 교사 연수회, 온라인 수업 등 일선 교사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연수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백서 발간과 SAT 한국어 문제집 출판, 표준 평가 문항집 발간 등을 통해 협의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객관적 평가 방안 모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나의 꿈 말하기 대회, 독서감상문 및 에세이 쓰기대회 등을 통해 동포 학생들의 취약한 부분인 표현언어 능력 향상을 꾀하고 있으며,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학생과 개최지 학생들을 위한 한국 역사문화 캠프도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은 각 지역협의회와 소속 한국학교를 돕고 이를 통해 지역협의회와 소속 한국학교들의 활성화를 가져오기 위한 우리 재미한국학교협의회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는 7월 14일부터 3일간 마일하이 시티라고 불리는 덴버에서 '소통과 공감의 열린 한국어 교육'이라는 주제로 본 협의회의 제34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덴버는 최근에 한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차세대 한국어 교육과 한국역사문화 교육이 한층 강조되고 활성화 되어야 할 곳입니다. 따라서 협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지역 사회에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한국문화체험관'을 오픈하여 한인사회와 주류사회가 소통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하여 콜로라도지역에서 한국어교육과 한류 바람이 크게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참가한 모든 선생님들이 동포 학생들의 바른 정체성 교육에 역량있는 한국어 교사이자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유익하고 즐거운 학술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오는 7월 덴버에서 개최될 학술대회에 모든 한국학교 선생님들을 기쁜 마음으로 초청하며 반갑게 만나뵙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애국자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이사장
장동구

낙스 17-2호 회보를 통해 낙스의 소식과 함께 여러 선생님께 인사를 나눌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각 협의회 소식과 학술대회에 대한 안내를 볼 수 있는 회보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해외에서 살고 있는 동포들에게 가장 소중한 사역 중 하나는 우리의 꿈나무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어와 한국역사, 그리고 한국문화 교육을 담당하고 귀중한 주말의 시간과 정열을 바쳐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이며 35년간 낙스를 꾸준히 발전시키고 굳건히 세워오신 주체이십니다. 우리 한국학교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7대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1년간 한국학교와 낙스 발전에 절실히 요구되는 여러 사업을 최미영 총회장을 중심으로 임원 전체가 협력하며 모든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회원교 및 낙스의 발전에 크게 기여함에 진심어린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힘입어 이사회에서는 워싱턴지역 한국학교, 전현직 선출이사님, 집행부의 협력으로 2015년 10월 워싱턴지역에서 차세대 교육발전을 위한 기금모금행사도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이번 SAT 한국어 교재 발간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낙스의 한 단계 성숙된 협력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각 지역 협의회 활동을 담은 본 회보를 통해 각 지역의 한국학교 선생님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교환되어 한국학교 발전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월에 예정된 덴버 학술대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통해 많은 선생님들께서 적극 참여하시어 모두에게 유익을 끼치는 멋진 덴버 학술대회를 치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보 17-2호 발간을 위해 최미영 총회장님과 황정숙 편집장님을 비롯한 17대 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어 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며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
한동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제 17대 2호 회보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올해 7월에는 제 34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가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관할지면서 로키산맥시대 최대의 도시로 알려져 있는 콜로라도 덴버에서 개최하게 되어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재미동포 자녀들의 한국어교육과 정체성 교육을 위해 헌신하신 최미영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그리고 한국학교 선생님 및 교육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미 한국어 교육 공감대 형성 및 발전과 체계화를 위해 개최한 지역협회장 연수와 연석회의, 선생님들을 위한 차세대 교사워크숍 및 각종 연수회, 그리고 학생들 한국어학습 동기유발을 위한 '나의 꿈 말하기 발표회' '독서 감상문 쓰기 대회' 등 회장님과 임원진은 물론 선생님과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 모습들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결과물인 본 회보는 한국어 교육 발전을 위한 아주 소중한 자료입니다.

공적개발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 나라로 탈바꿈한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 성공적인 민주화, 그리고 K-POP과 같은 한류열풍으로 인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의 한국어 교육이 뿌리교육 차원에서 모국어이해와 현지 적응 지원의 차원에서 실시되어 온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어 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웠을 때 조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어를 통해 삶이 윤택해지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으며, 한국대학으로 진학할 수도 있고 개인의 경험의 폭이 넓어질 수 있음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에 있는 한국학교의 한국어 교육이 재미동포들에게 귀중한 자산을 형성하여 주는 과정으로 인식되도록 보다 발전적이고 구체적인 교육과정의 개발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지난 1년간의 교육활동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회보 발간은 전미지역의 한국어교육이 더욱 내실있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제 17대 2호 회보 발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협의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해 주신 최미영 회장님 및 임원진 여러분 그리고 재미한국학교 선생님 및 학부모님, 동포교육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보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샌프란시스코한국교육원장
최철순

재미한국학교 지역협의회 활동에서부터 전미 학술대회에 이르기까지 한국어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내실있고 알차게 운영되고 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제 17대 2호 회보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올해 7월에는 제34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가 이곳 샌프란시스코 한국교육원과 함께 한국어교육 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콜로라도 덴버지역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협의회의 다양한 활동들을 지켜보면서 '교사의 질이 교육을 좌우한다'라는 말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전문성과 노력이 미국 한국어교육의 질을 좌우하고 그것은 곧바로 세계 속의 한국어교육의 질을 좌우하게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주중과 주말을 마다하지 않고 차세대의 한국어, 역사, 문화교육을 위하여 봉사·헌신하고 계신 최미영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그리고 한국학교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발전과 한류 열풍 등으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재외동포자녀들 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인들의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한국어학습에 대한 관심을 단순한 흥미차원이 아닌 '개인의 소중한 자산이며 미래의 개인 역량 강화에 핵심이 될 수 있다'라는 인식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학교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로 유명한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항상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았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차세대 한국어교육을 위하여 항상 끊임없이 자기연찬과 연구하는 지혜로운 선생님들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협의회는 선생님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사연수회 및 전문성 신장 행사를 더욱 활성화시키기를 당부합니다.

최근의 한국어 학습 열기의 이면에는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신 한국학교 선생님들과 재미한국학교 총회장님과 임원진들이 계심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재미한국학교 회보 발간을 계기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4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등록 안내

일시: 2015년 7월 14일 (목) - 16일 (토)

장소: 르네상스 덴버 호텔 (Renaissance Denver Hotel)

3801 Quebec Street, Denver, CO 80207, ☎ 301-336-5208

주제: 소통과 공감의 열린 한국어 교육

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자연과 교감하는 하늘 아래 도시인 덴버에서 올해 제34회 학술대회를 “소통과 공감의 열린 한국어 교육”이라는 주제로 개최합니다. 한국어 교육이라는 큰 주제 아래 각 분야별, 세대별, 지역별 선생님들이 상호 소통하며 공감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창의적인 차세대 교육에 관하여 함께 나누고 정립하여 서로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학술대회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지역에서 열리는 제34차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에 국내외의 많은 선생님들께서 참여하셔서 유익한 교육정보를 서로 나누시기 바라며 많은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가. 학술대회 등록 및 숙박 등록 방법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① 먼저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누리집(www.naks.org)에서 회원 등록을 하시고,

② 그 이후에 학술대회 등록을 완료하시면

③ 숙박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학술대회 등록은 크레딧 카드와 PayPal로 지불 가능합니다.

회원들의 학술대회 기간 중의 비용입니다. (7월 14일 ~ 16일: 3박)

1인 1실: \$105 + 세금 (14.75%) / 2인 1실: \$109 + 세금 (14.75%)

	등록비 (회원)	숙박비		총액 (등록비포함)
		참가자 1일 부담액	참가자 경비 (3박)	
1인 1실	\$100.00	\$120.49	\$361.47	\$461.47
2인 1실	\$100.00	\$62.54	\$187.62	\$287.62

비회원들의 학술대회 기간 중의 비용입니다. (7월 14일 ~ 16일: 3박)

1인 1실: \$105 + 세금 (14.75%) / 2인 1실: \$109 + 세금 (14.75%)

	등록비 (회원)	숙박비		총액 (등록비포함)
		참가자 1일 부담액	참가자 경비 (3박)	
1인 1실	\$150.00	\$120.49	\$361.47	\$511.47
2인 1실	\$150.00	\$62.54	\$187.62	\$337.62

① 회원은 NAKS 회비를 납부한 회원교의 교사를 뜻합니다.

② 학술대회에 동행하는 가족도 개인당 등록비 (\$100.00)와 함께 등록을 하셔야 숙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③ 2인 1실을 원하시는데 룸 메이트가 없으신 분은 먼저 각 지역협의회에 문의하셔서 룸메이트를 지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등록 시작 및 마감일

① 2016년 3월 1일부터 등록을 시작하며 회원 기준으로 5월 10일까지는 \$20.00 할인된 가격인 \$100.00이며 5월 11일부터는 \$120.00 그리고 5월 22일에 등록 마감하여 더 이상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② 2인 1실을 원하실 경우, 가능하면 등록을 일찍 하시기 바랍니다.

③ 등록 마감 이후에는 방의 사정상 신청하신 분의 희망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주요 프로그램

일시	시간	세부내용
7월13일(수)	08:30 ~ 21:00	집중연수회 개회식 및 강의 학교운영자 워크숍 개회식 및 강의
7월14일(목)	09:30 ~ 21:00	학교 운영자 워크숍 및 집중연수회 발표 학교 운영자 워크숍 및 집중연수회 수료식 특강 (한국 문화, 역사, SAT 한국어) 강사 오리엔테이션 만남의 시간 (함께 모여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하면서 프리 오프닝을 합니다.)
7월 15일(금)	08:30 ~ 21:00	학술대회 개회식 축사 정부 표창장 수여 전체 사진 촬영 기조 강연 NAKS 초청 VIP 오찬 (손님 및 강사) 및 함께 하는 오찬 한국문화 체험관 오프닝 및 전시 오후 분반 강의 근속 교사 표창 쓰기 대회 시상식 금요일 만찬
7월 16일(토)	09:00 ~ 23:00	전체 강연 오전 및 오후 강의 한국 역사 문화 캠프(학생) 한국 문화 체험관 전시 함께 하는 오찬 총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 장기자랑 대회: 주제 '응답하라 0000' 폐회
7월 17일(일)		귀가 혹은 여행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금요일 점심은 초청자와 함께, 토요일 점심은 강사와 함께 호텔에서 식사를 모두 함께 합니다.
- ☐ 토요일 만찬 후에 지역협의회 장기자랑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모든 협의회에서 발표시간을 7-10분 정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교통과 항공편

- ①자동차 이용시 무료 호텔 주차 제공합니다.
- ②공항에서 호텔까지의 교통편은 무료 호텔 셔틀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est 방향으로 나오셔서 Ground Transportation Island 3에서 Hotel이라고 적힌 표지판 근처에서 기다리시면 Renaissance Marriot Hotel 행 셔틀이 30분 간격으로 옵니다. 꼭 Stapleton Hotel이냐고 확인해 주세요.)
- ③미국 내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실 때에는 도착 공항 명을 Denver International Airport -DEN으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 ④한국에서 오시는 항공편은 United Airlines 중에서 일본 나리타 공항을 거쳐 한번에 덴버로 오시는 항로를 이용하실 경우 가장 쉽고 빠르게 미국으로 오실 수 있으며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은 로스앤젤레스를 통해서 덴버로 오시는 항공편으로 갈아타서 오실 수 있고 아시아나 항공은 샌프란시스코를 통해서 덴버로 오시는 항공편으로 갈아타서 오실 수 있습니다.

공고 및 안내

마. 관광

관광은 학술대회 전후에만 가능하며 1일 또는 반일 관광으로 개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 개교 20주년 이상 한국/한글학교 및 장기 근속 교사 표창 추천

본 협의회에서는 개교 20주년(30주년, 40주년, 50주년) 이상 된 한국학교 및 10년, 15년, 20년, 25년 그리고 30년 이상 한국학교에서 근무하신 선생님들을 표창합니다. 각 지역에서는 해당 학교 및 교사분들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교 20주년 이상 학교 표창 시에 10년 단위로 수여를 함)

- ①추천 마감일: 2016년 4월 30일 (수)까지 (마감 후 추천자는 제외됨)
- ②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거쳐 상패를 준비해야 하므로 마감일을 꼭 지켜주십시오.
- ③지역 협의회 회장님이 꼭 확인 서명하고 종합하여 보내주십시오(개별 접수는 받지 않음).
- ④보내실 곳: 김인숙 NAKS 부회장 (vp-ik@naks.org)

아. '한국문화 체험관' 전시 테이블 신청

- ①목적: 지역에 한국 문화와 한류를 널리 알리고 체험하는 장을 마련하여 주류 사회와도 함께 하는 학술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함.
- ②한국문화 체험관에서 한국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 민간 교류와 경제적인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체험 부스를 운영할 수 있음.
- ③사용료: 테이블(3X6)당 \$500.00 (회원 학교 및 단체), \$1,000.00 (비회원)
- ④판매 신청 및 문의: 이승민 부회장 (vp-sl@naks.org)
- ⑤마감: 2016년 5월 18일 (수)

자. 학술대회 강의를 광고 신청:

학술대회 재정 지원을 위하여 학술대회 프로그램 안내 책자에 게재할 광고를 모집합니다. 학교나 사업체 및 기타 원하시는 광고를 신청해 주시면 학술대회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학술대회 프로그램 안내 광고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①학술대회 프로그램 안내 책자는 1,000부 이상 인쇄되어 미국과 한국은 물론 전 세계로 배포되는 책자로 광고 효과가 큼.
- ②광고 비용: Full size Color \$3,000, Full size 흑백 \$1,000, 1/2 size: \$500.00 (표지 또는 페이지 순서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 ③마감: 2016년 5월 18일 (수)
- ④광고 신청 및 문의: 이승민 부회장 (vp-sl@naks.org)

차. 기타 주의사항:

- ①학술대회 참가 신청 및 호텔 예약, 장기근속교사 및 20년 이상 한국 학교 추천, 광고 게재 신청은 반드시 마감일을 지켜 주십시오. 숫자가 확보되면 마감일 일찍할 수도 있습니다.
- ②등록 취소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해 주시고, 6월 1일 전에 취소하시는 경우에는 등록비의 90%를 환불해 드리고, 6월 1일부터는 80%만 환불해 드리며, 7월 1일부터는 50%만 환불해 드립니다. 7월 10일(학술대회 직전 일요일)부터 최소할 수 없으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환불 방법은 협의회 수표를 등록된 주소로 발송해 드립니다. 단, 집중연수회와 한국학교 운영자 워크숍은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 ③호텔 예약 취소는 호텔을 통해 직접하셔야 합니다.
- ④학술대회 등의 행사에서의 모든 문서와 사진과 동영상에 관한 권리는 NAKS에 있으며 등록시 Terms and Conditions 를 열어 읽어 보시고 check-box에 표시해 동의하셔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⑤등록을 하시면 학술대회 가방 및 명찰을 제공하고 목요일에 간단한 저녁 식사와 금요일과 토요일에 만찬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 ⑥점심 식사는 한식 도시락으로 협의회 별로 주문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와 예약도 학술대회 담당 이승민 부회장에게 해 주십시오.

카. 기타 문의

학술대회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는 이승민 NAKS 부회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우편: vp-sl@naks.org | 전화: 703-628-4537

재미한국학교협의회 2016년 한국학교 운영 우수사례 공유 및 운영자 초청 워크숍

1.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주말한국학교의 교장들은 한국에서의 교육 이후에 동포 교육이라는 열정과 헌신 봉사의 과정을 거쳐 교장이 된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는 미국에서 정보 홍수의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차세대 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하고 행정력과 조직, 체계적인 학교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재교육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글로벌 리더를 양육하는 비전을 공유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각자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공적인 학교로 이끌어 교육의 혁신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1세기 지식 위주의 경제(Knowledge-based economy) 및 정보시대에 미국과 한국을 연결할 글로벌 리더 육성을 위한 한국어 포함 한인 정체성 교육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미국 전역에서 주말 한국학교 운영자들이 모여 함께 토론하고 배우고 의견을 교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사업 내용

- 1) **일시**: 2016년 7월 13일(수, 8:30 am – 9:00 pm) ~ 14일(목, 9:00 am – 11:30 am)
- 2) **장소**: Renaissance Denver Stapleton Hotel, 3801 Quebec St., Denver, CO 802073)
- 3) **담당자**: 권예순 NAKS 홍보간사(pr@naks.org/469-231-2733)
- 4) **내용**: NAKS 회원학교 운영자(교장 또는 교감)중 신청자 40명을 대상으로 2일간 워크숍을 실시한다. 2016년 제 34회 NAKS 학술대회 등록자에 한하여 협의회 웹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비는 50불이다. 선착순 등록자 20명에게는 등록비 전액을 환급하고, 참가자 전원에게 수료증 발급과 2회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특전이 있다.
- 5) **한국학교 운영자 초청 워크숍 커리큘럼**
 - 가) 21세기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비전 공유 (강의)
 - 나) 창의적인 학교 행정가는 누구인가? (강의)
 - 다) 학교 운영 사례 공개 (각 한국학교 운영 사례 공유)
 - 라) 한국학교 설립 프로젝트(팀별 프로젝트) 공유
 - 마) 학교운영 서식집 안내
 - 바) 한국학교 특별 사항 공유하기(그룹 프로젝트)
 - 사) 21세기형 인재양성을 위한 비전 선포(개인 발표)

3. 사업 일정

일자	내용	비고
2016년 3월10일(목)	공문 발송	14개 지역협의회
2016년 3월 12일(토)– 5월22일(일)	등록기간(온라인 등록)	협의회 홈페이지/ 40명 정원이 충원되면 조기 마감
2016년 6월 5일(일)	학교운영 사례 제출 마감일	참가자 전원
2016년 7월 7일(목)	강의록 발간	사업 담당자
2016년 7월 13일(수)–14일(목)	2016년 한국학교 우수 사례 공유 및 운영자 초청 워크숍	덴버, CO 선착순 20명 등록금 환급
2016년 7월17일(일)	사업 평가 및 보고서 작성	집행부/ 사업 담당자

4. 기대효과

- 1)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소속 한국학교 교장들의 교육과 전문성 향상 및 리더십 개발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재외동포교육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2) 한국 정부 및 외부 기관과의 소통의 장으로서 워크숍을 활용하며 교육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 3) 학교 운영 자료를 활용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교사들이 바르고 효과적으로 동포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 2016년 한국어 교사 집중연수회

일시: 2016년 7월 13일 수요일 (9시부터 9시까지) – 14일 목요일 (오후 역사강의 필수임)
장소: Renaissance Denver Stapleton Hotel (303) 399-7500, 3801 Quebec St., Denver, CO 80207

- 목적: 동포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학생들이 꼭 오고 싶고 부모님들이 보내고 싶은 한국학교를 위해서 교사들이 준비하고 교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진보적인 교수이론과 교수법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등록비: \$50
- 집중연수 기간 중 식사: 개인 부담
- 신청 자격: NAKS 회원교 교사에 한함
- 모집 정원: 50명 (선착순)
- 등록: 협의회 웹사이트를 통하여 등록함, www.naks.org (등록 마감: 2016년 5월 31일)
- 숙박: 2인1실 \$109 + Tax/day, (호텔에 직접 전화 혹은 협의회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함)
- 후원: 국립국어원, 이중언어학회
- 문의: 황정숙 편집장(jjjung@naks.org), 김정자 부회장
- 수업 시간표:

일시 및 강의		집중 강의	강사
	개회식 8:30-9:00	개회식	전체
	강의 1 9:00-10:10	한국어와 한글	송철의 원장 (국립국어원)
수요일 (한국어 교육 집중)	강의 2 10:20-11:30	한국어 교육과정 (Integrated Curriculum)	박석준 교수 (배재대학교)
	점심 11:30-12:45	NAKS Talks!!	모두 함께 (그룹별)
	강의 3 12:45-1:55	창의적인 학습 지도안 (Creative Lesson Plan)	이해영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강의 4 2:05-3:15	한국어 평가 (Evaluation)	김재욱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의 5 3:25-4:35	한국어 수업을 위한 발음교육의 이론과 실제	박기영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현 텃거스주립대 방문 교수)
	강의 6 4:50- 6:00	효과적 학급 경영 (Classroom Management)	김상복 교수 (콜로라도대학교)
	저녁 6:00-7:30	NAKS Talks!!	모두 함께 (그룹별)
	강의 7 7:30-8:40	한국어 어문규정	황용주 연구관 (국립국어원)
목요일 (역사 집중)	강의 8 9:00-10:50	교사 시연 (Lesson Plan Presentation)	모두 함께
	수료식 11:00-12:00	수료식	모두 함께
	점심 12:00-2:00		
	목요 특강 I	TBD	
	목요 특강 II	TBD	
	목요 특강 III	TBD	

제12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

1. 개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청소년들의 꿈과 비전을 한국어로 발표하며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12번째 꿈의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2. 참가자 : 연석회의에서 추천을 통해 선정된 5개 지역협의회에서 대상을 받은 학생

3. 대회일자 : 2016년 7월 16일 토 6:00 (학술대회 만찬장)

4. 각 협의회별 나의 꿈 말하기 대회 참가 자격 및 심사 기준 안내

- 1998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학생으로서 현 거주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협의회 소속 학교 학생.
- 현재 지역협의회 산하 한국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한국에서 초등, 중등, 고등 교육을 1년 이상 받지 않은 학생
- 지난 대회 대상 수상자 참가 불가 심사 기준
- 원고 내용(50%): 꿈 내용의 순수성, 건전성, 솔직성, 창의성을 중시함. 추상적인 내용보다 생활경험이 담긴 내용으로 듣는 사람에게 잘 전달되어 감동을 주는 내용, 세련된 내용보다 순수한 학생의 눈높이에서의 꿈의 내용. 내용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야 함.
- 발표 태도(30%): 자연스러운 태도, 내용의 이해도, 자신감, 표현력, 설득력, 호소력.
- 감동 (20%): 듣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따뜻한 감동을 주는가를 봄. 관객의 반응, 호응도.
- 기타: 발표시간은 3~4분이며 4분이 넘으면 감점이 있습니다.
- 위의 심사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협의회에서 대회를 치러주시시오.

5. 제출 서류 (서류제출 기한 2016년 5월 8일 edu@naks.org 한희영 교육)

- 나의 꿈 말하기 대회 신청서
- 참가자 사진(명함판 사진)
- 지역협의회 대회 수상 사진

6. 참가 학생 특전

- 각 지역 1등 학생에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총회장 표창장/ 예뵤한복 증정 예정
- 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상, 주미대사상,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원장상
- 부상 : 한국 방문(1명) 예정, 한국 연수(1명) 예정
- 한국역사문화캠프 무료 참가 (토요일 9:00 ~ 3:00)
- 학술대회 호텔 2인 1실 2박권

제6회 『백범일지』 독서 감상문 쓰기대회

1. 목적 :

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본국의 《백범 김구 선생기념사업협회》, 《재단법인 김구 재단》과 공동 주최로 거레의 큰 스승이신 백범 김구 선생의 삶과 사상이 담긴 『백범일지』를 통해, 자라나는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 선생의 생애와 거레 사랑, 나라사랑 정신을 바르게 알리고, 참된 용기와 지혜, 불굴의 투지와 희생정신을 고취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을 모국으로 하는 한국계 재외동포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지녀 민족적 자긍심을 드높이며, 개인과 사회, 국가와 인류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 하도록 돕고자 한다.

2. 주최 :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백범 김구 선생기념사업협회, 재단법인 김구 재단

3. 독후감 선정도서

중고등부 (7~12학년) - 『김구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다.』, 초등부 (4~6학년) - 『김구』

4. 대상: NAKS 14개 지역 협의회 소속 한국/한글 학교에 재학 중인 4-12학년 재학생

5. 대회 진행 방법 : 신청서를 제출 (1/19일)→ 김구재단 도서 받음 → 독후감 제출 (3/22일)→ 수상자 발표(4/26일 NAKS 웹사이트) → 학술대회에서 시상 (콜로라도)

6. 수상내용

- 수상자 전원 시상식 참석 경비 지원 (수상자 특전 참조)
- 장학금 지급
- 수상자 배출 학교 전체: 각 학교당 교육 선택 도서 증정 (US \$200 상당)

상명	구분	인원	시상금 (1인 기준)	
			장학금	비고
백범상	초등부/중고등부 통합	1명	\$ 500×1명	상패, 장학금
백범통일상	초등부	6명	\$ 100×6명	상패, 장학금
백범평화상	중고등부	6명	\$ 100×6명	상패, 장학금
합계		총 13명	총 \$1,700	

6. 현재 신청 상황 : 1월 19일 마감된 신청서는 전국 한국학교 303명의 학생이 신청하여 도서가 재단으로부터 우송되었다.

역사문화 캠프

1. 목적 : 우리의 미래인 2세 학생들에게 캠프를 통해 입체적인 역사와 그 시대 배경의 문화를 함께 배우고 체험하고 차세대 리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하고 자긍심을 키운다.
2. 참가 대상 : 콜로라도 지역협의회 각 학교 대표 2명씩, 각 전국 대회 우승 시상 학생들
3. 일시 : 2016년 7월 16일 토요일 9:00 - 3:00
4. 장소 : 르네상스 덴버 호텔 (Renaissance Denver Stapleton Hotel) 2층
5. 캠프 내용 :
 - 주제 : 한국의 위인 및 대표 문물
 - 활동 : 각 위인 및 대표 문물 섹션 수업 & 한국관 방문 및 참여
 - 발표 : 그룹 프리젠테이션



제20회 SAT Subject Test한국어 모의고사

“응시 신청학교 수 2015년보다 증가, 223학교에 지정답안지 발송”

2016년은 SAT Subject Test Korean with Listening이 채택되어 시행 20주년과 재미한국학교협의회가 매년 3월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SAT Subject Test 모의고사도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2016년 모의고사 응시 신청 학교는 223개교로 작년 188개보다 35학교가 증가했고, 총 3,767장의 지정 답안지와 듣기시험을 위한 음성녹음과 모의고사 문제지, 모의고사 세부사항, 평가의뢰용 답안지 내역등이 담긴 CD 430개를 발송했다. 또, 모의고사 만점자중 9학년-12학년 학생에게는 SAT Subject test 한국어 모의고사 만점 표창장을 발급한다.

1. 제 20회SAT Subject Test한국어 모의고사 출제 전문위원 회의

일시: 11월13일-15일, 2015년 장소: 아폴라한국문화학교 (Newark, NJ 허남자교장)

참가자: SAT행정담당NAKS김인숙부회장, SAT 한국어 전문위원 강주언 교수(Defense Language Institute, 빌립보한국학교), 정광현 교수(Pace University, 아폴라한국문화학교), 최연미 교수(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달라스한국학교), 평가위원 방정웅 한국어 SAT 전문위원장(달라스기독교한국학교)



11월13일 출제회의



SAT한국어 전문위원들



11월14일 출제회의

2. 감수위원 총원 (2016년 1월)

미주한국학교연합회에서 추천해 주신 임난희 교수 (University of San Diego, 샌디에고 갈보리한국학교)께서 제20회 SAT Subject Test 모의고사 문제지 감수위원으로 수고하셨습니다.

3. 제 20회SAT Subject Test한국어 모의고사

- 1) 시행 일시: 2016년 3월 18일 ~ 20일 사이
 - 2) 모의고사 장소: 회원 한국/한글학교
 - 3) 응시 및 평가: 무료
 - 4) 응시 대상자: 5학년 이상 한국학교 재학생, 졸업생, 일반 동포자녀
 - 5) 출제 3영역: 듣기(Listening Comprehension), 용법 (Usage), 읽기 (Reading Comprehension)
 - 6) 문항/시험 시간: 80문항/ 1hr.
- *평가의뢰: 시험 실시 후 일주안에 방정웅평가/위원장님께 학생 답안지와 답안지 내역서를 보낸다.

4. 2016년 7월14일 학술대회 SAT Subject Test 목요 특강과 분반 강의

학술대회 목요특강으로 SAT 모의고사 결과 및 평가보고와 실력향상과 본고사를 대비하는 새교재를 영역별로 편저자들이 직접 소개하고, 새교재 활용 교수법 분반강의도 준비한다. (SAT 문의: 김인숙부회장 insook814@gmail.com)

2015년-2016년 일사분기의 집행부 사업 보고

1. 17대 집행부 전화 회의 (2015년 9월 3일)
2. 2016년 34회 학술대회 개최 호텔 계약 (2015년 9월 18일)
 - 장소: Renaissance Denver Stapleton Hotel
3801 Quebec St., Denver, CO 80207
3. 2016년 제 34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 기자 간담회 및 콜로라도 지역 이사회와의 미팅 (2015년 9월 18-19일)
 - 장소: Denver, Colorado
 - 참석자: 유미순 콜로라도지역협의회 회장, 이시형 콜로라도 지역협의회 선출이사, 이승연 부회장, 장동구 NAKS 이사장, 최미영 총회장, 이승민 부회장
4. 2014-2015 회계 연도 감사 실시(2015년 9월 19일)
 - 장소: Denver, Colorado
 - 참석자: 심운섭 감사, 홍승희 감사, 장동구 이사장, 유미순 NAKS 재무, 최미영 총회장
5. 제1회 정주영 에세이 공모전 신청 마감 (전 미주에서 150명 신청) (2015년 9월 21일)
6.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후원 모금 만찬회 (2015년 10월 29일)
 - 장소: 팰리스 식당, Annandale, VA
7. 17대 집행부 회의 (2015년 10월 30일)
 - 장소: Courtyard Hotel, Arlington, VA
 - 참석자: 최미영, 김정자, 김인숙, 이승민, 오정선미, 유미순, 황정숙, 한희영, 권예순, 김원구
8. 2015년 2차 차세대교사 워크숍 (2015년 10월 31일-11월 1일)
 - 장소: Courtyard Hotel, Arlington, VA
 - 참석자: 뉴잉글랜드, 동북부, 동중부, 워싱턴 지역의 차세대 교사
9. 지역회장단 컨퍼런스 콜 (2015년 11월 5일)
10. 서북미 지역협의회 교육기금 모금 행사 참석 (2015년 11월 15일)
 - 장소: 시애틀 텍윌라 더블트리호텔
 - 참석자: 최미영 총회장, 유미순 재무
11. 2016년 20회 SAT 한국어 모의고사 출제 회의 (2015년 11월 14일-15일)
 - 장소: 아콜라 한국언어문화학교, Paramus, NJ
 - 참석자: 방정웅 SAT 한국어 전문위원회 위원장, 강주연, 정광현, 최연미 위원, 김인숙 NAKS 부회장
12. 2015년 학술대회 기조 강연 팀하 대표님 방문하여 감사 인사 전함
 - 장소: 팀하 대표님 사업장, Bluebell, PA
 - 참석자: 팀하 대표님, 제니스 하님, 최미영 총회장, 김정자 부회장, 이승민 부회장, 오정선미 사무총장, 권예순 홍보간사
13. 2015년 11월 21일 토요일 오후에 33회 학술대회에서 기조 강연을 해주신 팀하 대표님을 방문하여 기조강연을 해주시고 후원해 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음.
14. 정주영 에세이 공모전 시상식 (2015년 11월 21일)
 - 장소: Holiday Inn Hotel, Philadelphia, PA
15. 최미영 회장 한국 방문 (2015년 11월 25일-12월 4일)
 - 미팅: 재외동포재단, 디자이너 미팅, 김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국립국제교육원, 경상북도 등을 방문하였음
16. 제 6회 『백범일지』 독서 감상문 쓰기대회 공문 발송 (2015년 12월 1일)
17. SAT 한국어 교재 교정 회의 (2015년 12월 22일-23일)
 - 장소: Sunnyvale, CA
 - 참석자: 최미영 총회장, 교재 디자이너, 교재 교정팀
18. 17대 집행부 전화 회의 (2016년 1월 14일)
19. '백서, 학교운영 서식집 및 상설강사 목록집 개발/출판' 으로 재외동포재단 2015년 한글학교 맞춤형 지원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음 (2016년 1월 18일)
20. 제2회 정주영 에세이 공모전 공문 발송 (2016년 1월 26일)
21. 백서 출판 기념식 (2016년 1월 30일)
 - 장소: Renaissance Denver Hotel, Denver, Colorado
22. 2016년 지역협의회 회장단 및 집행부 연석회의 (2016년 1월 30일-31일)
 - 장소: Renaissance Denver Hotel, Denver, Colorado
 - 참석자: 14개 지역협의회 회장단(하와이, 북가주 회장님은 불참), 11대 이사회 장동구 이사장, 김대영 부이사장, 김미경 총무이사, 이시형 콜로라도 지역 NAKS 선출이사, 윤찬기 전 콜로라도 지역 이사장, 17대 집행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 한동만, 재외동포재단 교육지원부 부장 김봉섭

사업보고 및 학술대회 보고 I

23. 2016년 34회 학술대회 안내 및 협조 공문 외부 단체 및 기관에 발송 시작 (2016년 2월 6일부터)

24. 17대 집행부 전화 회의 (2016년 2월 18일)

25. 2016년 순회연수 1차 (2016년 2월 20일)

- 장소: 워싱턴 협의회 (강용철 선생님)
- 장소: 동중부 협의회 (김택수 선생님)

26. 오영훈 주재관님 송별 오찬 (2016년 2월 26일)

- 장소: 맨해튼, New York
- 참석자: 오영훈 주재관, 최미영 총회장, 김정자 부회장, 오정선미 사무총장, 황정숙 편집장, 표준평가문항집 개발 위원 등

27. Korea Society 방문 및 미팅 (2016년 2월 26일)

- 장소: Korea Society, New York
- 참석자: Thomas Byrne, Daniel Levine, 최미영 총회장, 김정자 부회장, 오정선미 사무총장, 황정숙 편집장
- 학술대회 초청과 한국어 및 한국역사문화 교육 협력에 관한 미팅

28. 표준평가문항집 위원회 회의 (2016년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 장소: Teaneck Marriott, Teaneck, NJ
- 참석자: 최미영 총회장, 이승민 부회장, 황정숙 편집장, 오정선미 사무총장겸 위원, 김미경 위원, 박은경 위원, 박찬미 위원, 송아리 위원, 이경애 위원, 이현규 위원, 추성희 위원 (백승희 위원은 출산 예정 관계로 불참)

29. 2016년 순회연수 2차 (2016년 2월 27일)

- 장소: 뉴잉글랜드 협의회 (강용철 선생님)
- 장소: 동북부 협의회 (김택수 선생님)

30. 2016년 학술대회 및 집중연수회 온라인 등록 시작 (2016년 3월 1일)

31. 2016년 한국학교 운영 사례 발표 및 운영자 워크숍 등록 시작 (2016년 3월 12일)

32. 17대 집행부 전화 회의 (2016년 3월 17일)

33. 20회 SAT Subject Test 한국어 모의고사(2016년 3월 18일~20일)

NAKS 웹 소개

NAKS 웹의 특징

재미한국학교협의회 (NAKS) 웹은 협의회 행사 및 행정 업무를 보조하고 이와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보관하며 방문자에게 다양한 정보와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목적과 취지에 잘 맞는 메뉴 구조와 함께 학술대회와 같이 큰 규모의 행사 운영의 많은 부분을 웹의 도움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웹 회원에게 제공하게 함으로써 NAKS 집행부가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아래에 NAKS 웹의 여러 특징을 나열해본다.

- 최신 웹 프로그램으로 사용자의 각종 웹 환경을 지원 (스마트폰에도 적합)
- NAKS 활동에 적합한 메뉴 구성 및 다양한 회원 권한 관리
- 각종 기록 보관 (연혁, 각종 표창/수상자, 집행부 명단 등을 연도별로 보관)
- 웹에 오르는 소식을 매주 1회씩 웹 회원에게 이메일로 전달
- 민감한 회원 정보 수집에 필수인 암호화된 통신 (SSL Certificate secured website)
- 학술대회 등의 행사 온라인 등록 및 신용카드 결제 지원
- 각 웹 회원 계정을 통한 개인별 서비스 (영수증, 수수료 발행)
- 이외에도 NAKS 및 지역협의회 달력, 온라인 설문 조사 기능, 게시글 수정 이력 보관, 사진 앨범, Google Map, Google Translate 메뉴, 등등 다양한 기능이 있음.

NAKS 웹 이용 현황

지난 2014년 11월 중순 이후 2016년 1월 말까지 약 14개월에 걸쳐 NAKS 웹을 이용한 접속 통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학술대회 온라인 등록 마감일 직전인 5월 중순과 학술대회가 열렸던 7월 중순경이 가장 접속 수가 많았다.

이 기간에 웹에 방문한 접속 통계는 아래와 같다. 2016년 2월 3일 현재 약 600여 명의 선생님이 NAKS 웹에 개인 계정을 가지고 있다.



- 총 방문자 수: 21,267명 (이 중에 49% 정도가 2번 이상 방문하여 NAKS 웹에 관심을 보임)
- 열람 페이지 수: 194,205 (방문당 평균 4.66 페이지 열람)
- 방문 체류 시간: 방문 후 평균 4분 34초간 NAKS 웹을 열어 봄
- 방문자 지역 분포: 미국 70.7%, 한국 17.0%, 기타 지역 12.3%
- 총 웹 회원 수: 623
- 총 등록 게시글 수: 1364

학술대회 온라인 등록 및 PDF 수수료증 온라인 발급

매년 개최되는 NAKS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는 NAKS의 가장 중요한 매우 큰 규모의 행사이다. 보안(SSL) 기능을 갖춘 웹을 통해 학술대회 등록을 받고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등록자 집계와 자료 처리가 신속하여 소수 인원의 NAKS 집행부가 학술대회를 운영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학술대회에 이메일 주소가 검증된 웹 회원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온라인 결제에서 생길 수 있는 각종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조치이기도 하지만, 웹을 통해 행사 등록에 대한 영수증 발행과 행사 후 온라인 수수료증(PDF) 발급 등 각종 서비스를 웹을 통해 처리하려는 조치이기도 하다. 웹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학술대회 관련 서비스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웹에 오르는 새 소식을 매주 1회씩 이메일로 수신
- 현재 및 과거에 등록된 학술대회 조회 (등록자 본인 이 입력 오타 수정 가능)
- 현재 및 과거 등록비 영수증 혹은 수수료증 등의 PDF 파일 제공
- 선생님방 글쓰기 권한 (Community / 선생님방)

이 외에도 여러 혜택이 있으나, 특히 NAKS 집행부로서는 등록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집계할 수 있어 행사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영수증 발행이나 수수료증 발행 등의 업무가 온라인으로 자동화되어 웹 회원들에게 신속한 서비스가 가능하여 NAKS 집행부에도 큰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다.

온라인 설문 조사 및 온라인 에세이 신청서

지난 2015년 2월에 실시한 “미국 공립학교에서의 한국 역사문화 교육 실태 조사”에 온라인 설문 조사는 종이 설문 조사를 보충하는 보조 설문조사 수단이었지만, 지난 2015년 학술대회를 마치고 웹을 통해 실시한 온라인 학술대회 평가 설문조사는 온전히 온라인으로만 진행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에세이 글쓰기 공모전도 웹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아 진행함으로써 신청자 정보 수집과 자료 처리가 쉬웠다. 학술대회를 포함한 많은 NAKS 업무를 웹을 통해 진행함으로써 NAKS 운영에 많은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웹 이용 요령

NAKS 웹은 한국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공간이므로 운영 목표가 뚜렷하다. 가령, 웹 회원에게 열려 있는 선생님방의 경우 교육적으로 좋은 글을 올리면 환영하지만, 광고성 글은 금지이며 예고 없이 삭제된다. 지역협의회를 위해 일부 소식 및 사진앨범 게시판들이 마련되어 있고, 지역협의회 행사 일정을 알릴 수 있는 달력 기능도 제공되고 있다.

웹 이용 시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일단 웹에서 “Community / 웹 이용 안내” 페이지를 먼저 살펴보시고 그래도 의문이 있을 때에는 “Home / NAKS Contacts / Contact NAKS” 페이지를 통해서 “웹 관련 문의”로 문의하면 된다.

2016년 순회연수회 보고서

일정: 2016년 2월 20일~27일까지

강사: 경희여자중학교 강용철 교사, 인천 발산초등학교 김택수 교사

강사	2월 20일	2월 27일
강용철 선생님	워싱턴지역협의회	뉴잉글랜드 지역협의회
김택수 선생님	동중부지역협의회	미주한국어재단, 동북부지역협의회

주말 한국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의 자질을 향상하고 교사들이 바르고 효과적으로 동포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연수회가 지난 20일 필라델피아와 워싱턴 근교에서 개최되었다. “교사는 아는 만큼 가르칠 수 있다”라는 기치 하에 지역협의회 교사들의 발전을 돕기 위해서 순회연수회를 기획하게 되었고 그 결실로 2015년 제1차와 제2차 순회연수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016년 2월에 동중부, 워싱턴, 동북부, 뉴잉글랜드 지역 등 네 지역에서 개최하였다.

순회연수 강사는 지난 2014년 인디애나폴리스 학술대회에서 선생님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경희여자중학교 강용철 선생님과 인천 발산초등학교 김택수 선생님이다. 한국에서 오시는 강사분들은 지역과 학교를 다니며 직접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만나면서 재외동포 교육의 실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고 하였다.

강용철 선생님은 2월 20일에 워싱턴 지역, 2월 27일에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김택수 선생님은 2월 20일에 동중부 지

역, 2월 27일에 동북부 지역에서 강의를 하였고 중간에는 학교를 다니시며 교사와 학생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며 미주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더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서도 의논하기도 했다.

강용철 선생님은 웃음과 감동이 있는 한국어수업, 맛깔스러운 수업기술, 지식톡톡 흥미진진 글쓰기 수업 등으로 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 한국학교를 살펴보면서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었고 김택수 선생님은 2015년에 개발한 ‘위인 역사 카드’를 중심으로 한 강의와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동기 유발을 높이기 위한 수업에 마술 첨가하기 등에 관한 흥미있는 수업을 하여 선생님들은 물론 학생들에게까지 인기를 한 몸에 모았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순회연수를 개최하여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소속 선생님들이 더 발전하고 이를 통해 동포 학생들의 뿌리 교육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순회연수회 배너



동북부지역 순회연수회 (뉴저지)

사업보고 및 학술대회 보고 I



동북부지역 순회연수회 (뉴욕)



동북부지역 순회연수회 (미주한국어재단)



워싱턴지역 순회연수회



워싱턴지역 순회연수회



동중부지역 순회연수회



뉴잉글랜드지역 순회연수회

차세대 교사 워크숍

1. 워크숍의 목적

- 1) 차세대 교사의 현재 위치, 현재의 문제를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차세대 교사의 비전을 모색해 본다.
- 2) 차세대 교사의 전문성을 특화해 한국어 교육의 질과 효율성을 높인다.
- 3) 차세대 교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정보교환 및 협력으로 교육 발전을 도모한다.

2. 추진 방향

- 1) 차세대만의 특별한 환경과 재능을 토대로 한국학교에서의 역할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 2) 차세대 선배들의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차세대의 바람직한 모습을 찾아본다.
- 3) 지역별 한국학교 수업 사례 발표와 문제점 토론을 통해 상호 정보 교환의 기회를 확대한다.
- 4) 차세대 교육자 간의 지역별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협력하고 교류를 증진의 토대를 마련한다.

3. 시행

- 1) 주관 :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 2) 후원 : 재외동포재단
- 3) 교육 일정 : 2015년 10월 31 ~ 11월 1일 (양일간)
- 4) 장소 : Washington D.C/ Courtyard Marriott Hotel /Reagan National Airport

4. 대상

- 1) 차세대 교사 2세(미국 출생) 혹은 1.5세(대학교부터 미국에서 교육) 지역협의회 소속 교사로 지역협의회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 2) 2차 참여 협의회(동부지역): 동북부, 동중부, 동남부, 워싱턴

5. 참가자의 제출서류 : 신청서, 차세대보고서, 학습지도안

6. 차세대 교사 워크숍 보고

지난 2015년 10월 31일과 11월 1일 양일간 Washington D.C Courtyard Hotel에서 재미한국학교협의회가 주관하고 재외동포재단과 주미한국대사관이 후원하는 차세대 교사 워크숍이 '차세대 교사의 현황과 과제' 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 행사는 NAKS 지역협의회 중 1차를 서부에서 개최한데 이어 2차를 동부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19명의 차세대교사와 오영훈 주재관, 안미혜 교육원장, 장동구 NAKS 이사장, 김대영 부이사장, 황보철 전이사장, 그리고 최미영 NAKS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워싱턴지역협의회장단이 참석했다.

강의는 문일룡FOPS교육위원님의 '차세대교사의 비전과 리더십', 황정숙 교감 선생님이 "실제 수업에 어려운 한국어 문법에 대한 이해", 이승민 교장 선생님이 '세대 간의 공감을 통한 이해와 극복' 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고, 이경애 교감 선생님, 오정선미 교장 선생님은 차세대교사들에게 멘토링을 해주셨다.

한희영 교육간사가 진행한 라운드 테이블 시간에는 차세대 교사의 현주소와 역할 및 미래에 대한 비전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양한 질문을 통해 함께 토론하고 발표하면서 차세대의 창의적인 생각과 미래에 대한 준비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마지막 프로그램인 차세대교사의 비전 발표는 참가자 모두에게 이번 워크숍의 결실을 나누고 미래를 다짐하는 비전의 시간이 되어주었다.



2016년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백서 발간 기념식

일시: 2016년 1월 30일 (토) 오후 2시

장소: 르네상스 호텔, Denver, CO

참석자: 14개 지역협의회회장단, 이사회 임원, 집행부 임원, 콜로라도지역 임원 및 선출이사,

김봉섭 재외동포재단 교육지원부 부장

2016년 1월 30일부터 1박2일 동안 34회 학술대회 개최지인 덴버에서 지역협의회 회장단 및 집행부 연석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본 협의회 35년의 역사를 기록한 '35년의 발자취를 찾아서' 라는 백서 발간 기념식을 동시에 개최하였는데 백서는 지난 2015년 재외동포재단 맞춤형 사업 우수상에 선발된 바 있다.

백서 편집을 담당한 권예순 홍보간사는 백서 편집을 하면서 협의회가 더욱 자랑스럽고 역량 있는 단체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하며 앞으로 다른 지역의 모델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2015년 말에 각 지역협의회로 발송된 '학교운영서식집' 과 함께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백서' 도 지역협의회를 통하여 각 회원학교에 2월 중에 전달될 예정이다.



사업보고 및 학술대회 보고 II

- 언론 보도 기사로 본 나스 소식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학술대회 성황리에 개최



▲ 마지막 순서인 대통령 봉사상 시상식에서는 최미영 총회장이 장동구 NAKS 이사장, 각 지역협의회 회장, NAKS 집행부에게 상패를 전달하며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총회장 최미영, 이하 NAKS) 제 33 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미래를 향한 창의적인 차세대교육’ 을 주제로 지난 16 일부터 18 일까지 뉴저지 티넥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미주 지역 한국학교 교사들이 한데 모여 한인 차세대 교육의 방향을 점검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NAKS 산하 14 개 지역협의회의 교사를 비롯해 미국과 한국에서 초청된 감사 및 자원봉사자 등 총 600 여 명이 참석했으며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김기환 뉴욕총영사, 정종철 워싱턴교육관, 하형록 팀하스 회장, 천진환 김구재단 부이사장 등이 함께해 이번 학술대회를 축하하며 교사들을 격려했다.

대회 첫날인 16 일에는 사이버외교사절단 이정애, 김보경 씨의 ‘한국 역사문화 스토리텔링&한국 바로알기’, 동북아역사재단 이원우 교육팀장의 ‘동아시아 공동체구축을 위한 사(史)적 고찰’, 청주 고인쇄 박물관 황정하 박사의 ‘우리 문화의 우수성: 금속활자 발명국, 코리아’ 등의 강연과 지역협의회 회장단 회의, NAKS 이사회와 임원회의, 북미지역 교육원장회의 등이 진행됐다. 방정웅 평가위원장 및 전문위원 3인이 함께하는 ‘제19회 SAT-II 한국어 전국 모의고사 평가 및 특강’ 과 ‘수상 학생 리더십 프로그램’ 도 열렸다.

17 일에는 개회식과 함께 표창장, 공로상, 감사패 수여식, 미국 건축설계회사 팀하스(Tim Haahs) 하형록 대표의 기조강연, ‘제 11 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 재외동포재단 초청 만찬 등이 진행됐다. 특히 오후 1시10분부터 5시15분까지는 총 7개 강의실에서 ‘뮤지컬로 배우는 한국어’ 부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과의 만남’ 까지 다양한 주제로 강연과 좌

담회 등이 열려 참가자들에게 역량을 끌어올리는 시간을 가졌다. 일정 마지막 날인 18 일에는 재외동포재단의 ‘스터디 코리안 콘텐츠 이용 설명회’,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박기태 단장의 특강 ‘광복 70 주년을 맞이하여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한 재외동포의 할 일’, NAKS 정기 총회, 각 지역협의회 대항 장기자랑대회, 오바마 대통령 봉사상 시상 등이 이어졌다. 정기총회에서는 소속 회원교에 그동안 NAKS 의 활동과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또한 재미한국학교협의회와 김구재단이 공동주최한 ‘제 5 회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쓰기대회’ 와 ‘제2회 백범일지 교육안 공모대회’ 시상식이 거행돼 총 13명의 학생과 5명의 교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각 지역협의회 대항 장기자랑대회에서는 교사들이 즐겁고 감동적인 무대를 연출해 흥겨운 여흥의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 치열한 경합 끝에 1 등은 1945 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보여주며 일본의 종군위안부 메시지를 전한 워싱턴지역협의회 ‘광복 70 주년 태극기와 함께한 순간’ 공연이 차지했다. 마지막 순서인 대통령 봉사상 시상식에서는 최미영 총회장이 장동구 NAKS 이사장, 각 지역협의회 회장, NAKS 집행부에게 상패를 전달하며 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재외동포재단, 교육부, 외교부, 국립국어원, 국립국제교육원, 청주시, 경상북도, 동북아역사재단, 주미한국대사관, 문화체육관광부, 김구재단,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의 공동 후원으로 마련됐다.

제 34 회 NAKS 학술대회는 내년 콜로라도 덴버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영기 기자 dongponews@hanmail.net/ tobe_kyg@naver.com < 출처:2015_7_20 재외동포신문 >



▲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제33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뉴저지 티넥메리어트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각 지역협의회 대항 장기자랑대회에서 1 등을 차지한 워싱턴지역협의회가 공연을 펼치고 있다.(사진=NAKS)

미주 차세대 독도교육 우리가 책임진다

경북도,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와 독도교육 MOU

대구/아시아투데이 문봉현 기자 = 경북도가 해외 한인 3·4세대 ‘독도 바로 알기’ 교육에 불씨를 당겼다.

경북도와 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17일 미국 뉴저지에서 ‘독도 올바르게 알기 및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신순식 경북도 독도정책관, 최미영 재미한국학교협의회장을 비롯해 1000여명의 미주지역 교장 및 교사들이 참석해 일본의 교과서왜곡 등 날로 심해지고 있는 독도도발에 대응해 한인 3·4세대 교육 공동 추진 등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은 16일부터 19일까지 미국 뉴저지 티넥(Teaneck) 호텔에서 재미한국학교협의회가 주최하고 경북도, 반크(VANK) 등이 후원해 열린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제33회 정기학술대회 중 체결됐다. 행사에서 신순식 독도정책관은 ‘대한민국의 아침을 여는 곳, 독도’라는 주제 강의를 통해 독도가 왜 지리적·역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인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강의에 참석한 교사들의 독도교육에 대한 지침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강의 참석 교사들은 독도가 당연히 한국 땅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근거에 대해 학생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했던 상황을 토로하며 이번 특강을 통해 그 동안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4일간 대회기간 동안 반크와 함께 대한민국·독도 홍보부스를 운영하면서 독도 만화, 리플릿, 에코백 등 독도홍보물을 배부해 많은 참가자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제33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한편 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1981년에 설립된 미국연방 정부 비영리단체로 미주 전역 총 14개 지역협의회 및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학교 1000개, 교사 5000명, 학생 4만 명으로 이뤄져 있다.

지난 35년 동안 미국 내에서 교민 2·3·4세대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SATⅡ 한국어 모의고사’ 및 예상 문제집 발간, 백범일지 교육안 공모 대회 및 독서 감상문쓰기대회 개최, 한국어 교재 및 평가안·학교 운영 및 행정용 서식집·한인교육 연구지 및 협의회 회보발간 등 한국어 및 한국 역사문화 교육에 큰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07_19_2015 아시아투데이 보도]

미래 향한 창의적 교육 모색

NAKS, 뉴저지서 학술대회 개최

새로운 리더십·교육 방향 필요
백범일지 감상문·교육안 공모

“미래를 향한 창의적인 차세대 교육을 주제로 지난 16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33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총회장 최미영 학술대회와 정기총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뉴저지 티넥 테이넥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는 재미한국학교 부가주협의회(회장 장은영)를 비롯해 NAKS 산하 14개 지역협의회 교사 60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세미나와 강연회를 통해 한국어 교육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최미영 NAKS 총회장은 “한국학교 교사들도 이제 1세대에서 1.5세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공부하는 학생들도 2세대를 넘어 3세대로 이어지고 있다. 젊은 세대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과 교육 방향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NAKS 측은 차세대 리더십 재지를 위해 1.5세 건축가 아형록 팀하스 대표를 기조연설자로 초청했다. 화 대표는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국립건축과학연구소(NIBS) 이사로 지명되는 등 성공한 기업인으로 꼽힌다. 또 한국어와 한국 역사·문화와 관련된 세미나 40여 개를 열어 교사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함께하는 오션’ 순서를 통해 교사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체험한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특히 아역사재민, 사이버고사재민 반크, 경주 고안재민 등 한국의 기관들도 대거 파견을 통해 우리 역사와 문화에 자식을 알렸다.

최미영 총회장은 정기총회를 마치고 장동구 NAKS 이사장과 각 지역협의회 회장, NAKS 집행부에게 “미래를 향한 방향”을 전달하기도 했다. 16일 열리는 제33회 NAKS 학술대회는 플로리다 샌버

석 열릴 예정이다.

한편, 행사기간 동안 김구재원과 NAKS가 공동주최한 ‘백범일지 독서 감상문 쓰기대회’와 ‘백범일지 교육안 공모대회’가 진행됐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감상문 쓰기대회에는 총 147명이 응모한 가운데 뉴욕한국학교 팔지원 학생이 대상인 백범일지 수상했다. 초등부 백범일지 수상에는 삼리원리 한국학교 유서연양과, 모퉁이를 한국학교 여서원 학생을 비롯해 모두 6명이 합했으며, 중고등부 백범일지 수상도 팔지원 한국학교 이규형 학생을 비롯해 6명에게 시상됐다. 교육안 공모대회에서는 팔라펠리아 일대나엘한국학교 김수현 교사가 창의성과 현실성, 참의도 등을 종합해 심사한 결과 대상인 백범일지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또 다슬한국학교 박은경, 모퉁이를 한국학교 송미영 교사가 백범일지 수상, 팔라펠리아 한국학교 박민정, 삼리원리 한국학교 이은우 교사가 백범일지 수상을 받았다.

최미영 기자
choi.leonghyun@koreasaily.com



최미영 총회장이 정기총회를 마치고 각 지역협의회 회장들과 NAKS 집행부에게 “미래를 향한 방향”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NAKS]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연례총회



(뉴욕=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미국 내 1천여개 한글학교 연합체인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는 17일(현지시간) 뉴저지 주 티넥에 있는 매리어트호텔에서 제33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식을 하고 본 행사에 들어갔다.

올해 행사는 한국계 어린이에게 한글 교육뿐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교육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회식 이후 하형록 팀 하스 앤드 어소시에이츠 회장이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07_18_2015]

사업보고 및 학술대회 보고 II

- 언론 보도 기사로 본 나스 소식

경북도·재미한국학교협 '한인 3·4세대 독도교육'



경북도·재미한국학교협 '한인 3·4세대 독도교육' (대구=연합뉴스) 경북도가 미국 뉴저지에 서 재미한국학교협의회와 '독도 올바르게 알기 및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2015.7.19 << 경북도 >> haru@yna.co.kr

(대구=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미국 뉴저지에서 재미한국학교협의회와 '독도 올바르게 알기 및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신순식 경북도 독도정책관, 최미영 재미한국학교협의회장을 비롯해 1천여명의 미주지역 교장·교사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교과서 왜곡 등 날로 심해지는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응해 한인 3·4세대에게 독도를 알리는 교육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대회기간 사이버 외교사절단인 반크와 함께 대한민국·독도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독도 만화, 리플릿 등 독도 홍보물을 배부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1981년에 설립된 미국연방정부 비영리단체로 회원학교 1천곳, 교사 5천명, 학생 4만명이다.

한국어와 한국 역사·문화 교육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haru@yna.co.kr [출처:2015_07_19 연합뉴스]

NAKS, 청주고인쇄박물관과 직지홍보 MOU

최미영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총회장이 직지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청주고인쇄박물관과 직지홍보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NAKS에 따르면, 협약식은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뉴저지 티넥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제 33회 NAKS 학술대회에 앞서 14일 진행됐고, 김종목 청주 고인쇄박물관장, 장동구 NAKS 이사장 등이 참석했고 조현용 경희대국제교육원장,

국립국어원 정희원 박사 등이 배석했다.

[출처: 07_21_2015 작성자 월드코리아안 신문]

NAKS, 차세대교사 워크숍 개최 “2,3세대 이해하는 교사발굴 시급”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총회장 최미영)는 “10월31일과 11월1일 양일에 걸쳐 워싱턴 DC에서 2차 차세대 교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차세대 교사는 2세 혹은 1.5세 한국학교 교사들을 일컫는 말. 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에는 워싱턴 지역을 비롯해 뉴욕,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콜로라도, 인디애나 주 등지에서 봉사하는 40명의 차세대교사들이 참석했다.

최미영 NAKS 총회장은 워크숍에서 “현재 미국에서 한국학교 학생은 2세대에서 3세와 4세로 넘어 가고 이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차세대 교사의 발굴이 시급하다”면서, “차세대 교사를 위한 맞춤형 연수회는 지역마다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NAKS 장동구 이사장 등 임원진들과 미국에 주재하고 있는 오영훈 전 재외동포재단 기획실장이 참 석한 이번 행사에서

사업보고 및 학술대회 보고 II

- 언론 보도 기사로 본 낙스 소식



는 교사들의 토론시간이 마련됐다.

NAKS는 “한국학교 교사로서의 어려움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교사들의 공통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일선에서 접한 생생한 체험을 나누는 계기가 됐다”고 워크숍에 대해 설명했다. 한 편 NASK는 지난 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1차 차세대 교사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월드코리아뉴스 이석호 기자]

미주 한인, 차세대 교육을 위해 뭉치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이사회(이사장 장동구)은 10월 29일 워싱턴 인근 팰리스 식당에서 ‘NAKS 후원의 밤’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워싱턴 지역과 미국 내 14개 지역협의회 뿐 아니라 전현직 재미한국학교 이사장, 총회장, 임원, 주워싱턴 총영사, 주미대사관 교육원, 여러 한인 단체 등의 힘으로 마련됐다.

총 150여 명이 참석해 행사를 진행한 결과, 1만 8000달러의 기금이 모여 차세대 교육에 관한 중요성을 한인사회가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협의회는 전했다.

협의회 장동구 이사장은 “34년 전 협의회 창립 당시의 초심을 되새기기 위해 이사회가 나서게 됐다”며 “이번에 모금된 기금이 차세대 교육을 위해 공익롭게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개최 소감을 밝혔다. [재외동포신문 김영기 기자]

SAT II 한국어 시험 “일보전진”

“SAT II 한국어 시험 20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습니다.” 지난 1997년 처음 치러진 SAT II 한국어 시험이 내년으로 꼭 20년째를 맞는다. SAT 한국어 시험에 대비할 수 있게 1997년 봄부터 매년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있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는 “한국어 시험 응시자가 매년 줄고 있는 추세이지만 내년부터는 다를 것”이라며 시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밝혔다.



내년 3월 24~26일에 실시되는 한국어 모의고사 문제 출제 등을 위해 뉴욕을 찾은 NAKS 산하 SAT 한국어 전문위원회 측은 14일 뉴저지주 팰름연회장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국어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20주년 기념 문제집을 발간할 계획”이라며 “실제 시험 수준에 맞춰 모의고사를 쉽게 출제해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에 따르면 SAT 한국어 시험 및 모의고사 응시자는 지난 2011년 이후 해마다 줄고 있다. 하지만 전문위원회의 방정웅 위원장과 김인숙 NAKS 부회장 등은 “SAT 주관사인 칼리지보드에 따르면 한국어 시험 응시자는 SAT II 외국어 과목 중 세 번 째로 많다”며 “한국어 시험을 치르는 것은 다양한 언어 습득을 위해 학생이 노력했다는 것을 대학 측에 보여줄 수 있어 입시 예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전문위원회 측은 내년 7월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열리는 NAKS 전국학술대회에서 한국어 시험 20년 기념행사를 여는 등 각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한서 기자 seo.hanse0@koreadaily.com

사업보고 및 학술대회 보고 II

- 언론 보도 기사로 본 낙스 소식

동포재단, '2015 한글학교 맞춤형 우수 프로그램' 10개 선정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은 1월19일 “ ‘2015년 한글학교 맞춤형 지원 우수 프로그램’ 10건 을 선정했다” 고 밝혔다. 동포재단은 2014년 말과 지난해에 세계 117개국 1,875개 한글학교를 대상으로 맞춤형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지난해에 총 218건의 사업에 대해 지원을 했다. 그리고 218건의 지원에 대해 결 과보고를 받아, 10건의 프로그램을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했다. 동포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벅스 카운티한국학교가 시행한 ‘한글날, 세종대왕과 독도를 만나 다’ 라는 사업이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뽑혔다.

이 밖에 동경한국학교부설토요학교의 ‘광복 70주년 맞이 2015 여름 한글캠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우리의 역사 박물관 및 문화체험관’ 뉴저지한국학교의 ‘뉴저지한국학교 어린이 합 창단’ 성 김안드레아한국학교의 ‘미주 이민 역사 교육을 통한 한국학교의 역사 교육 교재 개발’ 재미한국학교협회의 ‘책서, 학교운영 서식집 및 상설강사 목록집 개발 · 출판’ 프랑크 푸르트한글학교의 ‘좋은 수업 프로젝트/우리학교에 맞는 글쓰기와 역사교육’ (교재개발) 등 6건 은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또 브라티슬라바한글학교의 ‘독도의 날 캠프’ 성 바오로 정하상한국학교의 ‘전통문화의 향 연 붓글씨대회’ 프랑스한글학교협회의 ‘프랑스지역 한글학교 청소년캠프’ 등 3건은 장려 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동포재단은 최우수 프로그램에는 3,000달러, 우수 프로그램에는 2,000달러씩, 장려 프로그램 에는 1,000달러씩을 상패와 함께 전달할 계획으로, 시상은 해당 공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동포재단 교육지원부 관계자는 “재외동포재단 맞춤형 지원사업에 대해 한글학교 현장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했다”며 “앞으로도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해 한글학교 교육 역량 내실화를 도모하겠다” 고 밝혔다.

[월드코리아뉴스 이석호 기자]

2016년 NAKS 대회, 콜로라도 덴버서 열린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는 “2016년도 NAKS 학술대회를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콜로라도 덴버 시에서 개최한다” 고 밝혔다.

최미영 NAKS 회장이 내년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지난 19일 콜로라도 덴버를 방문하고, 덴버 국제 공항에서 6마일 떨어진 르네상스 덴버 호텔과 계약을 했고 내년도 행사 계획에



NAKS 콜로라도협의회를 방문한 최미영(왼쪽에서 두번째) 회장.

대해 장동구 이사 장, 이승민 부회장 , 콜로라도 지역협의회 임원들과 논의했다고 NAKS는 전했다.

콜로라도 지역협의회는 14개 NAKS협의회 중 가장 작지만 지난 2006년 24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유미순 콜로라도 지역협의회장은 “연중 해가 비치는 날이 300일 이상인 덴버에서 더욱 활기찬 학술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최미영 총회장은 “NAKS설립 35년을 맞이하는 2016년 학술대회는 한인 사회 뿐 아니라 주류사회에 도 다가가도록 문화를 개방해 콜로라도에서 한류와 한국 문화를 크게 확산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 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월드코리아뉴스 이석호 기자]

재미 한국학교 교사들, 7일 덴버에 모여 학술대회

재미 한국학교 교사들, 7월 덴버에 모여 학술대회 | 연합뉴스 (02.03.2016)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미국 내 한국학교에서 봉사하는 교사들과 교직원들이 오는 7월 덴버에 모여 학술대회를 연다.

미국 내 1천200개 한국학교 연합체인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회장 최미영)는 오는 7월 14일(현지시간)부터 3일간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소통과 공감의 열린 한국어 교육’ 이라는 주제로 제34회 재미한국학교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사업보고 및 학술대회 보고 II

- 언론 보도 기사로 본 낙스 소식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서 열린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연석회의 기념사진 촬영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백서 발간 기념사진 촬영

NAKS는 지난달 30~31일 덴버 르네상스호텔에서 14개 지역협의회 회장단이 참가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열어 학술대회 일정을 확정했다.

최미영 회장은 “올해 학술대회는 크게 성장하는 도시 덴버에서 열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이곳은 한국어와 한류의 보급이 더 필요한 지역으로, 학술대회가 그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제34회 학술대회는 창립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관’을 설치해 현지 주류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고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알릴 계획이다.

NAKS는 연석회의에서 ▲표준평가 문항집 개발 및 발간 ▲3월 수학능력시험(SAT) 한국어 모의고사 실시 ▲SAT 한국어 시험문제집 발간 ▲순회연수회 ▲교장 연수 및 집중연수회 등을 올해 사업으로 확정했다.

NAKS는 회의에 앞서 ‘35년 발자취를 찾아서-백서’ 발간 기념식도 열었다.

NAKS는 미국 전역 14개 지역협의회 산하에 1천200개 한국 학교를 둔 단체. 미국 정부에 비영리 단체로 등록됐고, 소속 학교에서 3만여 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

제34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 7월 개최

재미한국학교협의회(총회장 최미영, 이하 NAKS)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티벳 뉴저지에서 오는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콜로라도 덴버에서 개최되는 ‘제34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준비를 위한 임원회의를 가졌다.

1일에는 학술대회 기조 강연자인 전현 성균관대 유학동양학부 초빙교수를 초대하고 기조 강연과 학술대회 전반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동시에 뉴욕, 뉴저지 인근 언론인을 초청해 이번에 열릴 학술대회를 소개했다.

최미영 총회장은 전현 교수에게 “한국학교 교사들에게 타인과 어떻게 소통하며 사는 것이 바른 리더의 삶인가에 대한 답과 위로, 격려를 부탁한다. 또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는 이 시점에 한국학교에서 가르치는 한인 차세대와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한인과 미국인의 이중 정체성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한국과 미국, 나아가 세계에 공헌하는 리더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야하는지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현 교수는 “나 역시 배우러 왔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콜로라도 유미순 회장은 “콜로라도는 작은 협의회이고 한인이 적은 지역이지만 이번 학술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미 2014년부터 콜로라도가 2016년 학술대회 개최지임을 한인 지역사회에 알리고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제34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는 ‘소통과 공감의 열린 한국어교육’이라는 주제로 콜로라도 덴버의 Renaissance Denver Stapleton Hotel 열릴 예정이다.

특별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역사문화 체험관을 설치하고, 역사문화 캠프를 운영한다. 체험관을 통해 한국문화를 전시하고 지역 현지인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전시됐던 물품들은 이후 지역 박물관으로 보내어 전시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캠프를 통해 한인 소수 지역인 덴버의 학생들에게 우리 문화를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미영 총회장은 “NAKS 설립 35주년을 맞이하는 2016년 학술대회는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주류사회에도 문화를 개방해, 콜로라도 지역에 한류와 한국 문화를 크게 확산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민 정착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가장 소중한 문화인 한국어를 지키고 이를 통해 동포 학생들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한국학교 교사들이 모이는 이번 학술대회가 더욱 성공적이고 지역사회에 한국문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 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지난 4월 1일, 7월 개최 예정인 ‘제34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의 기조 연설자 전현 교수(아랫줄 왼쪽에서 세 번째)를 초청해 대회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사진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표준 평가문항집 보고서

주관단체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사업기간	2015년 5월 1일 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행사규모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전체

사업 목적

교육 평가는 의도한 교육 목표가 교육과정과 수업 활동을 통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며 학생의 학습 능력 및 학습 진도를 측정하여 학습자에게 맞는 레벨의 학습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에게 도움을 주며 또한 학습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낱스에서도 표준화된 교육평가 방법이 꼭 필요하다. 현재까지 낱스 소속의 많은 학교들이 사용하고 있는 평가는 SAT 한국어 모의고사와 한국의 TOPIK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SAT 한국어 모의고사는 적어도 정규학교 7학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TOPIK 시험도 동포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평가하거나 수업 활동을 돕는데는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 이에 본 협의회에서 현재 협의회 소속 한국/한글학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맞춤형 한국어’ 교재를 바탕으로 평가문항집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학습을 돕고 교사들의 교육 계획과 한국학교 간의 표준화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사업 내용

1. ‘맞춤형 한국어’ 교재 1~6권까지 총 6단계에 대한 단원별 총괄평가(성취도 시험) 문항 개발
2. 문제은행식으로 개발된 평가문항은 일차적으로 ‘성취도 평가(중간시험, 기말시험)’에 사용되고 배치시험에 사용 가능함. (level 1 기말시험 70점 이상 => level 2에 배치) 또한 말하기, 쓰기 문항은 수행평가에 활용될 수 있음.
3. 연구 결과물 : 총 47종의 평가지 인쇄본 및 평가문항 PDF파일

평가문항집 설계 내용

1. 주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맞춤한국어’ 1~6권 교재를 기본 교육내용으로 정함.
2. 한국/한글학교 표준 교육과정을 15주 X 2학기로 상정하고 1년에 교재 한 권(Level 1)을 성취하는 것으로 정함.
3. 문제은행식(item-bank) 평가도구를 만들어 각 한국학교

의 사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함.

4. 학생들이 절대 평가 기준으로 70% 이상의 성취도를 보일 때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수준으로 제작

5. 한 Level에 성취도 시험은 7~8개로 개발

1) Unit Test: 1과부터 3과까지를 하나로 묶어서 출제(1학년은 예외로 됨)

2)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① 학년별 교재에 따라 중간/기말고사의 출제범위 조정

② 1권: 1과~10과를 묶어서 중간고사로, 11과~16과를 묶어서 기말고사로 출제

③ 2권: 1과~7과를 묶어 중간고사로, 8과~16과를 묶어서 기말고사로 출제

④ 3권-6권: 1과~6과를 묶어서 중간고사로, 7과~15과를 묶어서 기말고사로 출제

3) 학년 총괄평가: 전체(1과~16과)를 하나로 묶어서 출제

① 학교 사정에 따라 기말고사 출제 범위가 한 학기

학습 내용일 수도 있고 1년 동안 학습한 전체

(1과~16과)가 될 수도 있음.

6. 시험의 구성은 지필 시험(paper) 또는 지필 시험과 말하기 시험(speaking)으로 구성됨.

1) 지필 시험은 선다형(multiple choice)과 쓰기 문제 등으로 세분화함.

2) 말하기 시험은 학습자와 평가자(교사), 또는 학습자 2명과 평가자가 과제 수행형으로 3-4 과제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

평가문항집 팀 구성

1. 연구 기획 및 총괄 팀장: NAKS 총회장 (최미영), 팀장 (오정선미 사무총장)
2. 평가문항집 개발위원: 한국학교 경력 교사 6인
3. 평가문항집 평가위원: 한국학교 경력 교사 3인

기대 효과

1.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평가 교재를 사용하여 교육 상황을 측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실태에 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음.
2. 학습자가 자신의 실력에 맞는 반에 배치됨으로써 학습에 보다 흥미를 느끼고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음.
3. 학생들의 객관적 자료가 재외동포교육 특히 미국에서의 동포 교육에 관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는 일에 도움이 되며 차후 영어권 교과서 개발에 밑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음.
4.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각 학교 간 편차를 줄이고 표준화하는 데 도움이 됨.
5. 올바른 한국어 교육을 통하여 2세 동포 학생들이 자신의 뿌리를 알고 모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되며 이를 통하여 올바른 정체성을 가진 재미한인으로 성장하도록 함.
6. 워크숍 자료 및 홍보 자료를 활용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교사들이 바르고 효과적으로 동포 학생들을 교육할 기회를 제공함.



뒷줄 왼쪽부터 이현규 위원 (6권 개발위원), 박찬미 위원(5권 개발위원), 김미경 위원 (4권 개발 위원), 박은경 위원(3권 개발위원), 황정숙 NAKS 편집장, 송아리 위원 (3-4권 교정위원), 이승민 NAKS 부회장, 앞줄 오른쪽부터 추성희 위원 (5-6권 교정위원), 최미영 총회장, 오정선미 사무총장 겸 개발위원(1권), 이경애 위원 (1-2권 교정위원)

평가문항집 위원 회의 보도자료

일시: 2016년 2월 27일- 28일

장소: 티넥 매리어트 호텔, 뉴저지주 티넥시

참석자: 최미영 총회장, 이승민 부회장, 황정숙 편집장, 오정선미 사무총장겸 위원, 김미경 위원, 박은경 위원, 박찬미 위원, 송아리 위원, 이경애 위원, 이현규 위원, 추성희 위원 (백승희 위원은 출산 예정 관계로 불참)

한국어 교육에서 표준화된 평가 도구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총회장: 최미영) 소속 한국학교들에서는 각기 나름대로 평가 도구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동포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적절하고 표준화된 평가 자료가 없어서 학교 내 혹은 학교 간 학생들의 이동 시에 정확한 평가가 부족하여 다음 교육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5년 초부터 표준 평가 문항집 개발팀을 구성하여 평가용 교재를 개발해왔다.

현재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소속 학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한민국 교육부 발행 '맞춤한국어'를 기반으로 1-6권까지 권마다 단원평가, 중간평가, 기말평가, 총괄평가 등을 포함하는 '표준평가문항집'을 개발, 편찬하고 있으며 출판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지난 2월 27일부터 1박 2일에 걸쳐 뉴저지 티넥 매리어트 호텔에서 3차 개발팀 회의를 가졌다.

그동안 수차례로 이어진 회의와 이메일을 통해서 내용에 관한 사항은 정리되었지만 하나의 통일된 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글 및 영문 지시문, 폰트, 페이지 마진, 명칭, 그림 사용 지적 재산권 해결 방안 등의 자잘하지만 중요한 사항들의 논의가 필요했다. 위원들은 학교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책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존각을 아끼가며 함께 논의하는 등 열정을 보였다. 각 권마다 개발위원이 있고 교정위원은 3명으로 총 위원 수는 9명이다. 표준평가문항집 발간일은 5월 초로 예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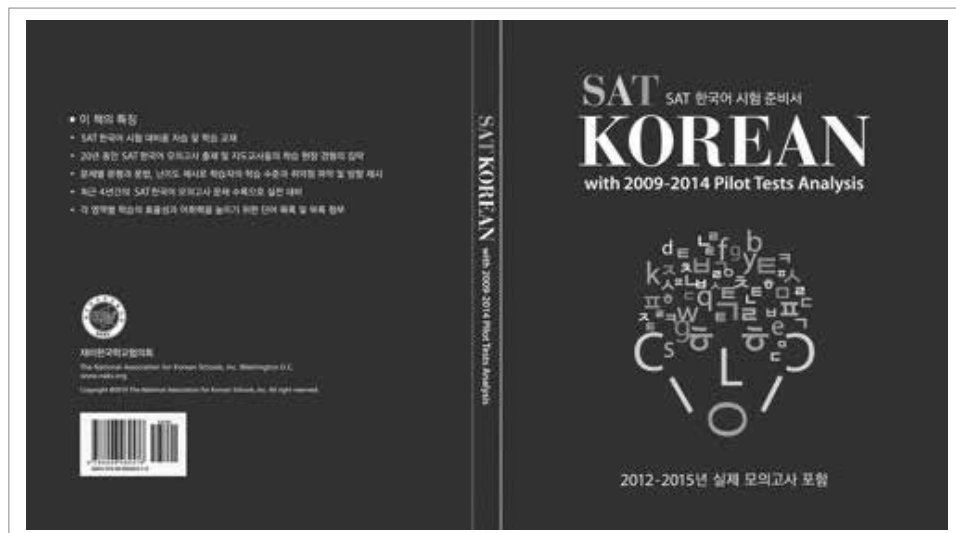
SAT 한국어 예상 문제집 개발 및 출판

1. 사업 목적

- 1) SAT 한국어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연습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한다.
- 2) 교사들에게 SAT 한국어 시험 대비를 위해 효과적으로 교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 3) 학생들이 SAT 한국어 시험을 치를 전략을 제안하고 준비상태를 점검하여 실력을 평가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 4) SAT 한국어 연습과 고급 과정 한국어 학습을 통하여 한국어 언어 능력이 기본적인 의사 소통 능력인 BICS (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kills)에서 지적인 사고 수준에 맞는 학문 연구를 위한 언어 능력 (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 수준까지 이를 수 있도록 돕는다.
- 5) 올바른 한국어 교육을 통하여 2세 동포 학생들이 자신의 뿌리를 알고 모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며 이를 통하여 올바른 정체성을 가진 재미한인으로 성장하도록 한다.

2. 교재 안내

- 1) SAT 한국어 예상문제집 (약 450페이지, 1개의 CD 혹은 웹사이트에 오디오 게재)
 - ① 학습 및 교수 방법 안내 (약 20 페이지)
 - ② Section I 연습과 설명 (약 70 페이지)
 - ③ Section II 연습과 설명 (약 60 페이지)
 - ④ Section III 연습과 설명 (약 110 페이지)
 - ⑤ Pilot Tests (2012-2015년도) (약 130 페이지)
 - ⑥ Answer and Explanation (약 10 페이지)
 - ⑦ 부록 (필수 단어 목록 등) (약 50 페이지)
 - ⑧ CD에는 Section I 연습과 설명 및 Pilot Test의 Listening Comprehension 부분을 위한 오디오 자료 수록
- 2) 내지 4도 인쇄 (Full color), 커버 4도 인쇄 및 ISBN 기재
- 3) 오디오 CD는 책에 부착 혹은 오디오 파일을 웹에 게재
- 4) 출판 일정: 2016년 6월 초에 출판 예정으로 학술대회에서 공개할 예정임.



정주영 에세이 공모전

제1회 대회 시상식 소식

재미한국학교협의회가 주관하고 정주영 기념 미주 재단이 후원한 정주영 에세이 공모전이 시상식이 2015년 11월 2일(토)에 펜실베이니아주 포트 워싱턴에 위치한 Hilton Garden Inn에서 있었다.

1회 대회에는 약 150명가량의 학생이 신청하여 대상에 서북미지역 나무 한글학교 노지영 양을 포함 11명이 상을 받았다. 시상식에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최미영 총회장, 에세이 공모전 담당자인 오정선미 사무총장, 권예순 홍보간사가 참석했으며 심사위원을 맡은 오세웅 교수, 방무성 정주영기념미주재단 이사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수상자는 대상 수상자인 노지영 양과 중등부 은상을 받은 김하은 학생이 참석했다.



제 1회 정주영 에세이 공모전 수상자 명단

		이름	영문이름	학년	학교	지역협의회
초등부	금상	박 아이린	Irene Park	6학년	애틀란타 한국학교	동남부
	은상	정 옥	Wook Jung	6학년	넷가에 심은 한글학교	동남부
		홍성범	Kenny Hong	4학년	몬트레이 한국학교	북가주
	동상	김새순	Karen Kim	6학년	애틀란타 한국학교	동남부
		김혜린	Harin Kim	6학년	실리콘밸리 한국학교	북가주
	대상	노지영	Jie Young Noh	9학년	느티나무 한글학교	서북미
중등부	금상	이하늘	Grace Lee	7학년	사모아 한글학교	하와이
	은상	이세하	Saeha Lee	7학년	달라스 한국학교	남서부
		김하은	Grace Kim	9학년	아콜라 한국문화학교	동북부
	동상	윤지수	Jeesoo Yoon	9학년	벨뷰 통합한국학교	서북미
		장선진	Sunjin Chang	9학년	다솜 한국학교	북가주

사업보고 및 학술대회 보고 III

제2회 정주영 에세이 공모전 안내

1. 참가 대상 및 자격

- ①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소속 한국학교에 재학중인 4-12학년 학생
- ② 미국학교 학년 기준으로 4-6학년(초등부), 7-12학년(중고등부)로 나누어 심사
- ③ 한국에서 초등, 중등, 고등 교육을 2년 이상 받지 않은 학생

2. 응모 요령

- ① 응모 작품 제출 마감일까지 응모작 양식서에 원고를 작성하여 한국(한글)학교에서 일괄하여 이메일로 제출
- ② 원고 분량: LETTER 사이즈 2-3페이지, Single Space Font Size 11
- ③ 응모작은 워드 파일로 작성해서 담당자(NAKS 오정선미 사무총장)에게 이메일로 제출(sunmi322@gmail.com)

3. 심사 및 당선작 선정 방법

- ① 심사위원은 NAKS에서 선정한 약간 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함.
- ② 심사 과정 및 결과에 관한 모든 절차는 NAKS에서 주관함.
- ③ 출품된 에세이는 반환하지 않으며 작품의 모든 저작권은 주최 측에 귀속됨.
- ④ 수상자들은 수상 후, 수상 소감문과 수상 소감 동영상상을 정주영 기념 미주재단 담당자와 NAKS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⑤ 심사 기준
 - A. 신청/응모 자격 적격 여부 우선 심사
 - B. 마감일 이후 제출한 원고는 심사에서 제외
 - C. 정해진 원고 분량을 초과하거나 맞추지 못한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
 - D. 에세이 제목과 내용은 자유롭게 선택
 - E. 학생 자신의 생각과 노력을 기초로 작성하였는지 심사
 - F. 한국어 어법이 맞는지 또 자연스러운지 심사
 - G. 응모 학생의 나이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신선한 창의력과 표현력을 중시하여 심사
 - H. 입상 작품에서 표절, 지도교사 혹은 부모님의 지나친 협조나 개입이 발견되는 즉시 무효 처리됨.

4. 심사 및 수상작 발표: 2016년 5월 15일까지 NAKS 홈페이지 및 각 학교 담당 교사에게 통보

5. 시상 내역 및 상금(모든 입상자에게 상패와 장학금 수여)

상명	상금(장학금)	구분	인원
대상	1,000불	중등부	1명
금상	500불	초등부	1명
		중등부	1명
은상	300불	초등부	2명
		중등부	2명
동상	200불	초등부	2명
		중등부	2명
장려상	100불	초등부	3명
		중등부	7명
합계			총 21명

6. 특전:

- ① 대상 수상자에게는 시상식 초청 항공권과 1박 2일 체재비 일체를 정주영 기념 미주 재단에서 제공함 (학부모가 함께 참석 시, 학부모 1인의 항공료를 재단에서 제공함).
- ② 금상 이하 수상자는 상금과 상장을 주소지로 발송할 예정임.
- ③ 모든 입상작은 단행본으로 엮어 NAKS 산하 각 한국학교에 배부할 예정임.

7. 시상식

- ① 일시: 2016년 7월 14~16일(정확한 일시는 추후 알림)
- ② 장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제34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장 Renaissance Denver Hotel, 3801 Quebec St, Denver, CO 80207

8. 주관 및 후원

- ① 주관: 재미한국학교협의회
- ② 후원: 정주영 기념 미주 재단

코리아 소사이어티와의 한국어 교육 협조 방안 논의

지난 2월 26일 회장단은 뉴욕에 위치한 코리아 소사이어티(Korea Society)를 방문하여 토마스 번(Thomas Byrne)회장을 만나 환담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한미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 증진을 위한 비영리 단체로서 1957년 밴플리트 장군의 제안에 의해 미국의 저명 인사들과 함께 창설 되었으며, 현재는 개인 및 기업 회원들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미 양국이 정책 기업, 경제 예술,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를 수행하며 상호 이해와 친선을 증진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최미영 총회장은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다른 여러 사업도 매우 중요하지만 한국어 및 한국 역사 문화 교육과 그에 관련한 학습 지도안 등에 관하여 매우 관심이 있다” 고 하며 한국학교에도 3세와 4세 학생들이 증가하고 다문화 가정도 많아지므로

서로 협업할 수 있는 사항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했다. 이번 만남은 재미한국학교협의회에서 미주한국어 재단과 함께 하는 연수회에 동북부 지역에 순회연수차 방문한 김택수 선생님(인천 발산초등학교)의 강의를 코리아 소사이어티와 함께 하면서 이루어졌다.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소속 한국학교 들의 한국어 및 한국역사 문화 교육에 관해 매우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오는 7월 콜로라도 주 덴버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에도 영어로 한국역사와 문화를 강의하는 강사를 파견하는 일에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주류 사회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 사람들만의 한국어 교육에서 더 넓게 열린 한국어 교육으로 발돋움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2016년 지역회장단 및 임원 연석회의

일시: 2016년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장소: Renaissance Denver Hotel, Denver, CO

참석자 명단

지역회장단: 남서부 임지현 회장, 뉴잉글랜드 한순용 회장, 동남부 선우인호 회장, 동북부 박종권 회장, 동중부 설인숙 회장, 미시간 오준석 회장, 서북미 이미숙 회장, 워싱턴 한연성 회장, 중남부 김명숙 회장, 중서부 윤현주 회장, 콜로라도 유미순 회장, 플로리다 김현 회장

이사회 임원: 장동구 이사장, 김대영 부이사장, 김미경 총무 이사

콜로라도 지역 이사회: 이시형 학술대회 준비위원장, 윤찬기 이사장

17대 집행부: 최미영 총회장, 김정자 부회장, 김인숙 부회장, 이승민 부회장, 오정선미 사무총장, 유미순 재무, 황정숙 편집장, 한희영 교육간사, 권예순 홍보간사, 김원구 웹마스터

손님: 한동만 SF 총영사, 김봉섭 재외동포재단 교육지원부 부장



개회식 (1월 30일 오후 1시)

개회 선언

국민의례

인사 및 소개

개회사: 총회장 최미영

격려사: 이사장 장동구

축사: 재외동포재단 교육지원부장 김봉섭

참석자 소개

Icebreaking Game

이사회 보고

사업 소개: 2016년 상반기 사업 및 학술대회 안내

재외동포재단 소개 (교육지원부장 김봉섭)

SF 한동만 총영사 주최 만찬

2차 회의 (8:00 pm ~)

지역협의회 특화 사업 소개 및 기타 안건과 라운드 테이블 발표

3차 회의 및 폐회 (1월 31일 9:00 am ~ 11:30 am)



동북부지역협의회



박종권회장

역사문화 체험캠프

교실에서 배우는 역사문화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살아있는 교육을 해보자는 취지로 2013년 시작해 올해로 4회째를 맞는다. 캠프는 8월에 열리지만, 캠프를 주관하는 역사문화분과위원회의 연구교사 모임은 1년 내내 주제 선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이 재미있게 온몸으로 심도있게 체험학습토록 공동연구한다. 매년 30여 학교에서 1백명 내외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참가학생들은 타학교 학생들과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민족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고, 자신의 정체성 확립에도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다. 교사들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들은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등 한국학교 학습자료로 공유되고 있다.



한영/영한 번역대회

학생들에게 한글의 우수성을 일깨우고 우리말고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이중언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매년 11월 실시한다. 올해로 17회를 맞는다. 부문은 셋별(3학년), 초급(4-5학년), 중급(6-8학년), 고급(9-12학년)으로 나눠 실시하며, 각 부문별 금상, 은상, 동상과 장려상을 시상한다. 번역대회 참가자들이 학교에서 추천받아 선발되어 온 점을 감안해 가급적 많은 학생들이 상을 받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대회 공고와 함께 각 부문별 출제범위 등을 제시해 학습욕구를 북돋운다. 매년 30여개 학교, 200명 내외의 학생들이 참여한다.



각 지역협의회 주요 사업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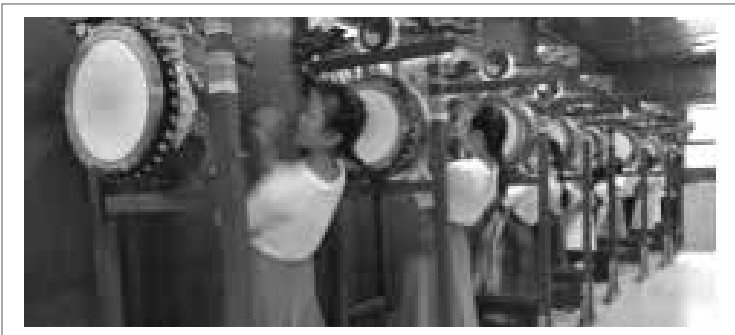
동중부지역협의회



설인숙 회장

한국문화 여름캠프 ‘한국의 소리’ 개최

본 협의회에서는 지난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포코노 소재 마운트 길레드 캠프장에서 한국문화 여름캠프 ‘한국의 소리’를 개최했다. 1.5세와 2세 자녀들에게 한국 문화 체험을 통한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일깨워 줌으로 한국인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각 개인별로는 자신의 талан트를 계발시켜 주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한 이번 여름 캠프에는 필라델피아 및 남부뉴저지에 해당하는 동중부 지역 9개 학교에서 38명의 한국학교 학생들을 비롯 총 51명이 참가하였으며, 본 캠프 주관 조직인 뉴욕취타대의 이춘승 단장 외 4명, 우리가락 한국문화예술원의 강은주 원장과 오정희 명창을 강사로 초빙하여 사물놀이, 모듬북, 삼고무, 창 의 네 마당으로 2박 3일간 진행되었다. 사물놀이 마당에서 17명의 학생들이 삼도 사물놀이 합주가 이어졌고, 바로 9명의 창 마당 참가자들이 국악동요 ‘오나라’와 남도 민요 ‘진도 아리랑’으로 소리 공연을 펼쳤다. 중간 프로그램으로 오정희 명창의 ‘새타령’과 뉴욕 취타대의 설장구 합주로 프로 연주자들의 공연도 선보였다. 마지막 순서로 야외에 세팅된 모듬북 공연장에서 포코노 산중을 울리는 대한민국 모듬북 합주로 공연을 마무리 하며 모든 관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남서부지역협의회



임지현 회장

중창대회와 백일장 및 미술대회

봄 학기 5월 첫째 주 어린이 날을 맞아 중창대회와 나의 꿈 말하기 대회, 또한 대회에 나가지 못하는 저학년들을 위해 작은 꿈 말하기 대회를 개최한다. 중창대회는 10명의 학생이 최대 인원으로 꾸며지며, 악기는 피아노 반주만을 사용해서 모든 참가 학교가 같은 조건에서 공정하게 실력을 평가받도록 하고 있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초등학교 1-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작은 꿈 말하기 대회는 장차 나의 꿈 말하기에 도전하려고 준비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좋은 연습 무대가 되고 있다.

가을에는 10월 첫째 주 한글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백일장과 미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미술대회는 협의회에서 준비해 주시는 고유 도화지가 각 학교의 학생 수 만큼 배부되며 각 학교에서 50분 동안 치뤄지고 있다. 미술대회는 유아부까지 모두 참가 할 수 있는 대회라서 참가 인원이 점점 늘어 지난 해에는 1,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가를 했다. 미술대회의 시상으로는 대상, 금상, 은상, 동상, 가작, 입선으로 나뉘지며 유치부, 유년1-3, 유년3-6, 중고등부로 학생들의 나이에 맞게 나눠 심사를 하고 있다. 해마다 많은 학교에서 참가를 하고 계시고 학생들의 실력 또한 점점 늘고 있어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지만 남서부 만의 특색을 살려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대회가 되도록 임원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항상 협조해 주시는 저희 지역 교장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감사드리며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남서부 만의 특별한 행사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다.



각 지역협의회 주요 사업 보고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



한순용 회장

어린이 동요제

뉴잉글랜드협의회에서는 매년 12월 초에 동요제를 실시한다. 경연대회로 치러지는 행사가 아닌 동요제는 한국학교에서 배운 동요를 많은 참여학교 학생과 학부모님들 앞에서 발표를 한다. 대중문화에 묻혀 사라져 가고 있는 동요를 사랑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아름답고 고운 노래를 찾아 주어 맑고 고운 마음을 키워주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학생들은 무대에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으며, 노래를 준비하는 동안 상호 협동심을 기르고 동요 속의 아름다운 노랫말을 통해 아름다운 한국어 표현을 습득하고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를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속적으로 어린이 동요제를 실시해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아름다운 우리의 노래를 찾아 주려고 애쓸 것이다.



동남부지역협의회



선우인호 회장

제 10회 한글 올림피아드

제 10 회 한글올림피아드대회에 동남부 한글학교 25 개교 참가, 동남부지역협의회가 주관한 제 10 회 한글 올림피아드가 지난 14 일 돌루스 연합장로교회 여호수아비전센터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동남부지역 한국학교 총 25 개교가 참가했으며 320 여명의 학생들이 문장순서 맞추기, 동화구연, 한글바른말찾기, 이야기듣고 요약하기, 전통놀이, 단체전 OX 경기, 동시낭송, 받아쓰기 등의 종목에서 발군의 실력을 드러냈다. 특히 올해는 한국역사퀴즈가 신설돼 제한시간 45 분동안 주관식, 객관식, OX 퀴즈 등 총 30 문항에 대한 문제풀이 시간도 가졌다.

김성진 총영사는 “한글은 우리 겨레를 하나로 묶어주고 문화민족으로 우뚝서게 해준 우리 모두의 자랑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한글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하였다.



미시간지역협의회



오준석 회장

미시간지역협의회 한국학교의 날 축제

본 협의회에서는 매해 “미시간 한국학교의 날 축제”를 연다. 매년 협의회 소속 한국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가 모두 참가하는 큰 규모의 행사로, 주제 강연을 시작으로 학교별 장기자랑, 이야기 대회, 역사 문화 체험 등의 다채로운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행사이다. 한글학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우의를 다지는 미시간 한국학교의 날 축제로 펼쳐지고 있다.



북가주협의회



장은영 회장

신입교사 양성 연수

북가주협의회에서는 제19기 가을 교사 집중 연수회 및 제2기 신입교사 양성 연수를 마쳤다. 회원학교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제 수업에 도움을 주는 분반강의 중심의 ‘교사 집중연수’와 오랜 수업의 경험을 가진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 방법과 노하우를 알려주며 신입교사를 이끌어주는 강의와 워크숍 등 ‘신입교사 양성 연수’를 실시했다.

근속교사 표창 및 차세대 교사 표창

매년 협의회에서는 5년 이상 ‘근속 교사 표창’과 2년 이상 ‘차세대 교사 표창’ 및 지역 한의회에서 ‘모범교사 표창’을 통해 교사들에게 진심 어린 격려와 사명감을 함양하고 있다.



각 지역협의회 주요 사업 보고

서북미지역협의회



이미숙 회장

한국어 말하기 대회

본 협의회에서는 매해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실시한다. 한국 학교에서 배운 한국어 실력을 말과 이야기가 글로 전개함으로써 한국어 교육에 발전을 가져다주며 어린이들의 동심과 꿈과 희망을 한국어로서 표현하는 축제이다.

한국어 합창 경연제

본 협의회에서는 매해 ‘한국어 합창 경연제’를 실시한다. 한국의 동요 및 민속음악을 노래하여 음악을 통해 긍정적인 정체성 함양 및 흥미를 유발하여 한국인의 긍지심을 불러 일으키고 한국의 긍정적인 문화와 언어를 접하도록 한다.



워싱턴지역협의회



한연성 회장

한국학교 교사의 밤

협의회 주최 행사로 해마다 “교사의 밤”을 연다. 이 지역의 88개의 한국학교 600여명의 교사들의 봉사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는 교사의 밤 행사가 매년 12월 첫째 또는 둘째 주에 열린다. 이 행사에서 지난 1년간의 교사들의 근무 성적을 가지고 “최우수 교사상”과 “5년 근속상”을 수상하고 각 한국학교 간의 연대감을 다지기 위해 학교간 장기자랑을 한다. 교사들을 위해 푸짐한 경품행사와 선물이 준비되어 교사들만의 나눔의 시간으로 행사가 진행된다.



중남부지역협의회



김명숙 회장

청소년 리더십 캠프와 학생 축제

중남부지역협의회에서는 해마다 중남부 청소년 리더십 캠프를 연다. 여름 방학을 이용해 지역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주제 강사의 주제 강의와 소그룹 토의, 다양한 강의 및 야외 활동 등으로 참석한 학생들이 새롭게 자신의 이상과 리더십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중남부 학생 축제

또한, 해마다 중남부 학생축제를 연다. 봄학기중 지역 한글학교 학생들이 함께 모여 고학년은 나의 꿈 말하기 대회를, 저학년은 동화구연대회를 실시한다. 더불어 매년 다른 주제로 사생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점심후 행사지에 따라 각종 게임이나 관람을 실시한다. 폐회식에서는 모범학생 표창 및 각종 시상이다. 중남부 행사 중 참여도가 가장 높은 행사이다.



중서부지역협의회



윤현주 회장

이민 역사 및 문학 워크숍 및 교수 학습 계획안 작성

본 이민 역사 및 문학 워크숍은 한인 2세 작가들이나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책을 선정하여 (영어로 된 서적을 학생들이 읽게 되지만) 그 표현을 한국어로 혹은 책 속의 우리의 정서와 문화등을 배우며 더 나아가 동포자녀들에게 새로운 꿈을 갖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학생들에게 수준별 책을 정하여 모둠을 나누고 미리 책을 읽어 오신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모아 짧은 시간 안에 학습 계획안을 만들고 발표한다. 또한 학습 계획안을 이용하여 교실에서 직접 수업하여 결과물을 보고한다. 앞으로 이민 역사 수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포 자녀들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과 학생들로부터 긍정적 효과를 얻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콜로라도지역협의회



유미순 회장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 민속놀이 한마당, 그리고 나의꿈 말하기 대회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가 2015년 4월25일 덴버제자교회에서 개최되었다 (7개 한국학교 150여명 학생 참여, '내가 좋아하는 한국음식' 주제). 그리고 추석을 맞이하여 총5개 학교 200여명의 학생들과 100여명의 교사와 자원봉사자 그리고 부모들은 2015년 10월3일 민속놀이를 체험했다 (한국의 전통놀이 체험). 지난 2015년 11월15일에는 제13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가 새문한국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참가자들은 자신감있는 모습으로 자신의 꿈을 발표하였다.

교장연수회 / 교사 사은회 및 봄학기연수회

2015년 12월5일 교장연수회 및 교사 사은회를 개최했다 (총9개학교 60여명의 교사가 참석). 두 행사를 동시에 개최하면서 교장들의 교류 활성화와 우수교사 표창등을 통하여 교사들의 사명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2016년 2월13일에 봄학기 교사연수회를 개최했다 (8개 한국학교 50여명의 교사가 참석, 이승연 성로렌스 한국학교 교장 강연). 또한 이날 각 한국학교에서 교육 관련 자료들을 공개하며 서로 정보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플로리다지역협의회



김현 회장

한국학교 교사수련회와 한글날 기념 글짓기대회 시상식
플로리다지역협의회에서는 제 43차 교사수련회가 북가주 지역 송아리 강사를 모시고 2016년 1월 16일 (토요일) 올랜도 한국학교에서 있었다.



이번 교사수련회에는 12개 학교에서 60여명의 교사가 참가하였고, 지난 수련회의 설문조사를 통해 참가자들의 분반토의 활성화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교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이번 수련회에서 제26차 한글날 기념 글짓기 대회 보고 및 시상식이 있었다. 13개 학교 252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유치, 초, 중, 고등부 각 수준별 금, 은, 동상과 장려상을 18명의 학생들이 수상하였고, 부상으로 는 태블릿 PC와 도서 상품권이 제공되었다. 또한 이번 정기 총회에서 제13대 지역협의회장으로 템파통합 학교 김진희 교장 선생님이 선출 되었다. 새 회장과 13대 임원의 임기는 5월부터 2년간이다.

하와이지역협의회



손애자 회장

제 16회 스승의 날 기념 종합 예술제 및 제 10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

하와이 지역협의회에서는 해마다 나의 꿈 말하기 대회, 글짓기 대회, 동요대회 등 여러가지 행사를 실시합니다. 지역내 다른 한글학교들과 교류하며, 특히 교사들은 협의회가 주최하는 교사연구회를 통해 해마다 실력향상에 힘을 기울입니다. **2015년 10월엔** 제 16회 스승의 날 기념 종합 예술제와 제 10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015년 9월**에는 교사연구회를 실시해 한국어 수업에 관한 다양한 자료들을 나누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당신의 눈에서 대한민국을 보았습니다!

강용철 강사

경희여자중학교 교사, 이화여대 겸임교수 역임

한국학교 선생님들께 바치는 글

당신의 입에서 퍼지는 한국어는,

우리의 귀에 들리는 애국가입니다.

당신이 알려주는 문화 역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의 모습입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당신의 눈동자에 깃든 한국의 정신을!

당신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차디찬 바람에 몸이 움츠려드는 2월 중순, NAKS 동북부 연수를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한국학교 선생님들을 만난다는 기대와 워싱턴, 뉴잉글랜드를 처음 가보게 된다는 설렘과 더불어, 귀국 후 바로 개학이라는 업무적인 부담감도 한 움큼 마음에 품고 출국을 하였습니다.

‘낙스 학술대회, 재외동포재단 초청연수’ 등에서 수많은 한국학교 선생님들을 만나며 강의를 했지만, 순회연수가 더욱 뜻깊게 다가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체 연수에 참석하지 못하신 단위 학교의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고, 둘째, 선생님들과 가까운 자리에서 좀 더 밀착화된 느낌으로 소통과 대화할 수 있으며, 셋째, 강의 내용을 섬세하고 자세하게 물어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워싱턴 지역과 뉴잉글랜드 지역 모두 임원진들 선생님들께서 밝은 미소로 맞이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이번 순회연수는 다양한 분들을 뵈 수 있어서, 더욱 뜻깊었습니다. 일부 한국학교의 수업을 직접 참관하며 실제 수업상황을 관찰하였고, 직접 아이들 대상으로 특강도 하였습니다. 특히 한국학교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위해 ‘학생의 관점과 시선’으로 수업을 하고자 노력하며 수업자료를 만드시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루의 수업을 위해 일주일을 투자하는 선생님들의 노력을 수업 속에서 보았습니다.

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직접 특강을 하고, 쉬는 시간에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를 물어보니, 한 친구는 엄마의 강력한 권유 때문이라고 하였고, 한 친구는 코리안-아메리칸으로서 자신의 뿌리인 언어를 배우고 싶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한 친구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한국학교 교육에 참여한다고 하였습니다. 목적과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한국학교를 통해서 한국어의 정신, 모국의 마음을 느끼는 아이들이 대견스러웠습니다.

공립 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수업도 참관을 하였습니다. 최근 K-pop이나 한류의 열풍으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미국 정규학교에서 외국어 교과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한국어 교육의 다양한 상생의 모델을 생각했습니다. 이번 순회 연수의 본 목적인 지역협의회 연수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400분이 넘게 참여한 워싱턴 지역협의회 연수 때에는 강의 장소에 들어오시

지 못한 분들이 복도에서 강의를 듣는 장면(마치 소설 상록수의 한 장면)을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송구하였습니다.

150분이 넘는 뉴잉글랜드 지역협의회 연수에서도 여러 지역의 선생님들께서 실습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많은 질의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두 지역 모두 언론사에서 자세한 기사를 실어주셔서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작년 순회연수에 이어 이번에도 한국학교 선생님 댁에 가서 식사와 숙박을 하며, 한국학교 선생님들의 삶과 철학 속에 조금 더 다가가고 잠시나마 삶을 공유한 점이 유익했습니다. 그동안 재외동포재단과 낙스를 통해, 미국 한국학교를 경험하며 느낀 감동과 놀라움을 몇 가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학교는 아이들이 자신들의 뿌리와 가족의 역사를 이해하고, 미국 주류 사회에서 글로벌

인재가 되도록 하기 위한 장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계셨습니다.

둘째, 한국학교의 운영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계십니다.

셋째, 언어교육 외에도 한국의 문화 정신을 알려주기 위한 다채로운 역사·문화행사를 통해 아이들의 추억 속에 한국을 심어주고 계셨습니다.

저는 크나큰 감동과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 과연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고 사유하였습니다. 그 원동력은 바로 ‘한국학교 교사들의 선의, 봉사, 기여의 마음’, 특히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몸소 실천하는 사명감과 소명정신이 아닐까 합니다. 낙스의 순회연수를 통해 강의를 하러 갔지만, 제가 배우고 깨달은 바가 더 큼니다.

이번 낙스 순회연수를 마치며, 재외한글학교와 낙스의 발전을 위해 한국과 관련기관에 몇 가지 제언을 붙여 보냅니다.

첫째, 한국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재외동포들의 삶을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재외동포학’ 이 학문적 위상을 정립

했으면 합니다. 또한 관련 전공의 학자들이 학회를 구성하고 선제적인 연구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둘째, 한국 교육부, 외교부와 협업을 통해 한국 내 교과서와 교육과정에 재외동포에 이야기가 반영되어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재외동포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글로벌 마인드를 가졌으면 합니다.

셋째, 낙스의 우수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공유되어, 한글학교 교육이 선순환 구조로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넷째, 한글학교에 기여하는 모든 분들의 역사가 기록되었으면 합니다. 몇 달을 근무한 분부터 수십 년을 봉사하신 분들의 이름이 재외동포의 역사로 남아서, 그 분들의 노고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 재외동포재단에서도 이력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한국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학교신문이나 작은 교지를 발행해보기를 제안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정리하며 순회연수를 위해 노고해주신 많은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최미영 낙스총회장님과 임원진분들, 워싱턴 지역협의회 한연성 회장님과 임원진분들, 보스턴 지역협의회 한순용 회장님과 임원진분들, 연수에 참석해주신 선생님들! 늘 재외동포와 함께 나누고 배움을 실천할 기회를 주신 재외동포재단 관계자분들! 출국과 귀국을 함께 하며 늘 교육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는 김택수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길게 말씀드리지 못한 송구함이 큼니다. 이런 송구함은 한국학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숙고하며 조금씩 깊어가고 있습니다.

한겨울을 품어낸 마음으로 새로운 봄을 준비하겠습니다. 한국학교의 봄날에도 아름다운 꽃이 피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 2016년 봄이 오는 길목에서, 강용철 올림

제 17대 임원 한 마디 함께하는 멋진 향해의 뱃노래



최미영 회장

지난 1년을 되돌아봅니다.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학술대회와 순회연수회, 집중연수회, 차세대 교사 워크숍, 리더 교사 연수회, 백서 발간과 SAT 한국어 문제집 출판, 표준 평가 문항집 발간, 나의 꿈 말하기 대회, 독서감상문 및 에세이 쓰기 대회 등 많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임원님들의 헌신과 수고, 그리고 각지역 협의회장님과 교사 여러분의 따님의 결정체라고 믿습니다. 부족한 리더를 따라와 주시고 세워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제 오른손이 되고 왼손이 되어 같은 호흡과 노래로 배를 저어주신 우리 닉스 17호 임원진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김정자 부회장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이 시제를 후회없이 잘 역어서 나가면 성공이란 말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17대 닉스호가 바로 이런 것들을 품고 향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16대에서 어려웠던 문제들을 안고 현재를 헤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임원들이 닉스를 위해서 한 가지 이상의 도전과 희생 정신으로 아름다운 미래를 차세대에 넘겨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우리 임원들이 얼마나 닉스를 위해 최선을 다해 뛰었는지를 많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17대호의 한 일원으로서 재미한국학교협의회에 밝은 미래와 희망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 부회장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이 시처럼 행복은 나눌 때 더욱 행복해지고, 임원은 최선을 다하여 함께 일할 때에 더욱 소중합니다. 참 아름다운 드림 팀, 그대들과 함께여서 정말 행복합니다. 닉스 모든 한국학교 선생님들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풀꽃/나태주) 이런 애정어린 마음으로 한국학교 학생들을 대하고, 서로를 대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승민 부회장

재미한국학교협의회 17번째 집행부 릴레이 팀으로 합류 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바통을 넘겨줄 준비를 하게 되네요.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에 많은 것을 배우고 도전 받았습니다. 좀 더 많은 배려와 공감 그리고 화합을 이루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회를 위해 수고해 주시고 앞으로 수고해 주실 분들 모두 처음 마음을 간직하고 협의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한 마음 한 뜻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정선미 사무총장

17대 NAKS호가 대망의 향해를 시작한 지도 1년 반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임원들은 같은 일을 하는 동료 중에서 누군가 넘어지면 함께 부축해서 뛰는 동지로, 그리고 이전엔 말하지 않아도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본을 보이는 리더를 따라 우리는 정말 열심히 달려왔고 또 많은 일을 함께 했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NAKS의 근간인 산하 한국학교의 선생님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학교를 담당 한 대표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또 해결책을 찾아 보려고 시도한 일들이 학교 행정 서식집, 백서, NAKS 표준평가문항집 등으로 그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도 반납하며 귀한 시간을 평평 쏟아부으며 일하는 우리 선생님들은 21세기의 독립투사들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어느 교수님이 보내주신 기사에 “우리 인류의 역사는 ‘짹’ 과 ‘쪽’ 의 이야기다.” 란 글이 있었는데 참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남은 기간도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는 ‘짹’ 으로 우리의 임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함께 ‘쪽’ 을 이루어 일할 기회를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유미순 재무

17대가 새출발을 한 지 엇그제 같은데, 어
느새 벌써 반년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재
정적으로 어렵게 시작했지만 많은 분들의
지원과 사랑덕분에 지금은 넉넉해진 낙스
가 된듯 합니다. 후원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저는 일년동안 낙스의 재무
로서 봉사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이 많고 힘들 때도 있었
지만 한 배를 탄 임원들간의 소중한 만남과 인연은 잊지 못할 추억
이 있을뿐아니라, 계속해서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보배로운 관계로 발전하게 되어 이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며 달려온 것을 느낄 수 있습
니다. 이제 그 마지막 터널을 지나는 과정에서 더욱 분발하여 끝까
지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예순 홍보간사

17대 임원 선거를 하던 2014년 9월 이후
담당했던 모든 사업이 다 의미가 있지만 ‘
백서 발간 사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
다. 35년의 역사를 정리, 기록한다는 막중
한 책임에 부담이 컸고, 오랜 시간과 노력
에 지치기도 했지만 우리 협의회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 그리고 회
원학교에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동력이 되어 사업
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최미영 총회장님
과 임원님들과 함께 일하면서 든든한 동지들이 계시니 얼마나 힘
이 났는지 모릅니다. 늘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행복했고,
많은 일을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도 묵묵히 일함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차세대 동포의 뿌리교육’이라는 선한 뜻으로 함께 모인 협
의회의 초심, 그 동기가 순수하기때 마음과 지혜를 모아 바른 길을
찾아간다면 NAKS는 무궁히 발전할 것이라는 ‘참 희망’이 있습
니다. 감사합니다.



한희영 교육간사

17대의 등불을 켜고 마을 위로 올라간지 2
년이 되어갑니다. 2년동안 정말 여러가지
행사와 사업을 하면서 저희의 빛이 우리 선
생님들과 학생들에게 나가 재미한국학교협
의회의 미래를 비추었으면 하는 바람이었
습니다. 처음엔 앞만 바라보며 비추던 빛이었는데 점차 그 빛이 언
젠가부터 우리들을 너무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
습니다. 그 따스한 빛 가운데 있을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황정숙 편집장

과분한 기회라 여기며 조심스레 NAKS에
발을 디딘 그 어느 날을 또다른 어느 날엔
후회도 할 만큼 일이 버겁기도 했지만 이제
한 폭으로 완성되어가는 그림이 참 좋습니
다.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어서 행복했습
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묘한 매력도 알았습니다.
낙스 회보와 한인교육연구지와 각종 출판물의 종이 냄새와 컴퓨터
활자가 좋았습니다. 더 땀흘리지 못 했고, 더 많이 배려하지 못 했
고, 더 열심히 뛰지 못한 마음은 두고두고 값을 빚으로 남기려 합니
다. 눈부시게 빛날 다음 세대를 품고 키워내는 한국어 교육의 현장
에서 오래도록 뵈고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4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정기 총회 및 학술대회

“소통과 공감의 열린 한국어 교육”

2016년 7월 14일-16일

Renaissance Denver Stapleton Hotel (303) 399-7500
3801 Quebec St., Denver, CO 80207

재미한국학교협의회

2016년 7월14일~16일

제34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소통과 공감의 열린 한국어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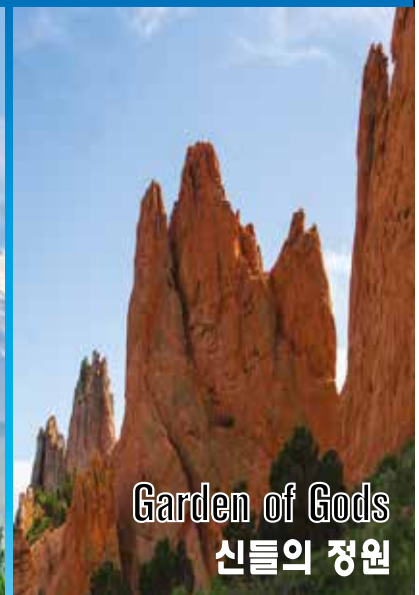
Renaissance Denver Stapleton Hotel. 3801 Quebec St. Denver CO 80207

등록: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누리집 www.naks.org

기간: 2016년 5월 22일까지



MILE HIGH CITY
COLORFUL COLORADO



Garden of Gods
신들의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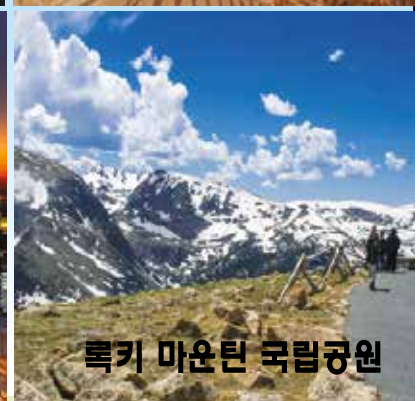
레드락 파크 & 공연장



Royal Gorge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



다운타운 16th Street



록키 마운틴 국립공원

2016 이화국제하계대학

Ewha International Co-ed Summer College



이화 국제하계대학은 한국 대학의 하계 프로그램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프로그램으로 모든 강의가 영어로 진행됩니다. 46년의 역사, 최고의 강사진으로 운영되는 이화 국제하계대학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유익한 2016년 여름을 위해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구분		Session I	Session II
기간		2016.6.21(화) - 7.20(수), 4주	2016.8.5(금) - 19(금), 2주
프로그램 특징		학술 및 문화 프로그램	맞춤형 '한국학 입문' 프로그램
지원자격		대학교(원) 재학 남, 여 대학원생 혹은 2016학년도 대학 입학 예정자	
정규 학비	지원비	10만원	10만원
	수업료	310만원	180만원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한인입양아 장학금, 이화동창 장학금 및 조기 등록할인 등 ※ NAKS를 통해 지원하는 모든 학생들에게는 학비 10% 감면의 추가 혜택을 드립니다.	
수업		한국학, 동아시아학, 경제, 경영, 인문, 정치, 사회, 예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오전 및 오후 각각 1과목씩 선택 (한국어수업포함)	한국어수업 및 한국 관련 특강으로 이루어진 한국문화 체험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Field Trips		매주 금요일 및 토요일에 다양한 교외 활동에 선택적으로 참가 가능	수업과정의 일부인 Half-day field trip 외에 1박 2일의 '안동' 전통 문화 탐방 여행
취득 가능 학점		과목 당 3학점, 총 6학점	'한국학 입문' 3학점
지원 및 납부 마감		2016.5.13(금) ※ 조기등록(20%할인) 마감: 2016.3.25(금)	2016.7.1(금) ※ 조기등록(10%할인) 마감: 2016.5.20(금)
참가 신청		http://summer.ewha.ac.kr 에서 온라인 지원	
필요 서류		재학 혹은 성적 증명서(2016년 입학예정자의 경우 입학허가서) 사본 해외 여행자 보험증(한국국적자의 경우 한국 건강보험증) 사본 여권 사본	
문의		이화여대 국제교류처 (이메일: gosummer@ewha.ac.kr , 전화: 82-2-3277-3160)	

